

Annual Report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



창조경제의 주역,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겠습니다

2012년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금리와 경제성장률이 모두 3% 이하로 떨어져,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소기업에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정부는 2012년 창업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 성장 기반마련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부정책 기초에 발맞추어 청년창업전용자금을 신설 운영하여 신규창업 950개, 신규일자리 1천 669개를 창출하였고, 정책자금의 66.7%인 2조1천7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했으며, 정책자금을 단순 자금 공급에서 탈피하여 정책자금과 기업 경영혁신을 연계 지원하는 진단 기반 자금으로 1조 1,549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스마일 스토리지(知)사업을 신규로 수행하여, 481명 청년구직자의 으뜸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였고, 착한 가격, 우수한 품질, 친환경의 스마트한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일반인에게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중진공은 중소기업 정책집행의 최일선기관으로서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걸림돌 제거,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등 정부의 중점 정책과제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창업기업의 육성과 기업의 성장을 통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올리는 '일자리 늘지오'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법적 제도적 규제와 애로사항을 31개의 현장접점과 4개 연수원을 통해 적극 발굴하여 중진공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해결하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관련 정부부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애로 해소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인 중소기업의 3불(不)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일하기 좋은 으뜸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착한 가격·우수한 품질의 스마트제품을 확대 발굴하여 전 국민의 중소기업 바로알기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온오프라인·자금지원 등 타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수출준비단계, 수출실행단계, 및 현지진출단계의 단계별 총력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창업 및 소공인자금을 대한 평가를 2無(담보, 재무제표) 1視(기술성) 평가체제로 운영하고, 창업·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중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비중을 55% → 70%로 확대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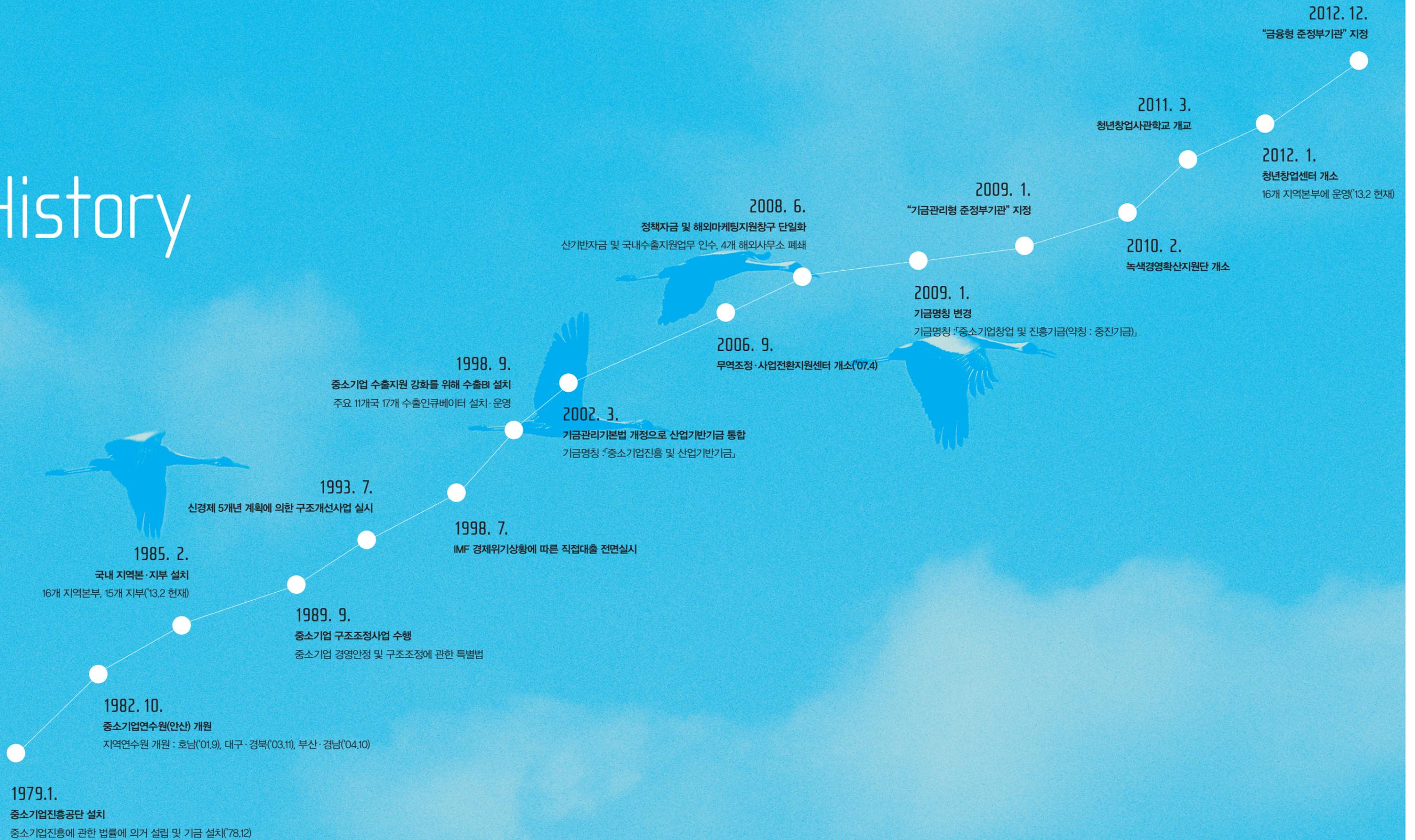
1979년 창사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중진공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중소기업,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진공은 중소기업 여러분의 창의적인 열정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항상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스마트한 비즈니스 동반자 "Smart Business Companion" 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4. 이사장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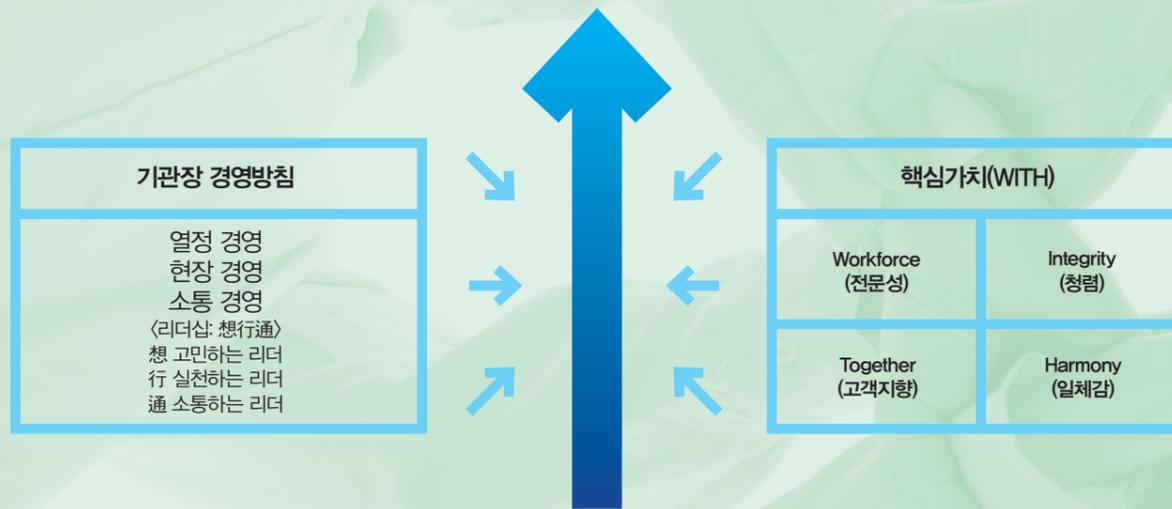
중진공 비전, 전략체계

미션

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

비전

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



전략 목표

- ① 성공창업의 중심
- ② 지속성장의 엔진
- ③ 경영관리체계 선진화전략

전략 과제

- ① 성공창업 기업가 양성
- ② 창업 성공기반 확립
- ③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
- ④ 진단기반 맞춤형지원
- ⑤ 성장기업의 혁신능력 제고
- ⑥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지원기반 강화
- ⑦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건전성 제고
- ⑧ 고객서비스 향상
- ⑨ 선진 경영체계 구축

경제동향과 중소기업동향

경제동향

2012년 한국경제는 글로벌 수요부진 및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로 2.0%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률이 전년(3.7%) 대비 둔화되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 생산은 수출부진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7.1%→2.2%)되고, 건설업(Δ1.6%)은 건설경기의 부진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2.5%)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지출항목별로는 장기화되는 대외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설비투자(Δ1.9%), 건설투자(Δ2.2%)는 감소하였으며, 민간소비(1.7%)도 전년(2.4%)대비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수출(5,479억달러)은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수요부진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하였고, 수입(5,196억달러)도 내수 부진 및 수출 감소로 0.9% 감소하였다. 취업자 수(24,681천명)는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3만7,000명 증가하며,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실업률도 3.2%로 0.2%p 하락하는 등 전년도부터 이어진 고용호조세를 지속하였다. 취업구조 측면에서 임금근로자중 상용직은 전년동기대비 43만6,000명 증가하였으며, 임시·일용직은 2,000명, 12만명 감소하였으나, 20대의 고용률이 56.3%(30·40·50대 : 약 70%)로 청년 실업문제는 여전히 현안과제이다. 소비자물가는 기상여건 개선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상승폭 둔화 등으로 2.2% 상승하며 전년(4.0%)대비 안정세를 보였으며, 생산자물가도 0.7% 상승했다.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경제활동별 성장률(실질) (%)					
국내총생산(GDP)	2.3	0.3	6.3	3.7	2.0
국내총소득(GDI)	Δ1.2	1.9	6.0	1.3	2.3
수출동향 (억달러, %)					
수출(FOB) (증감률)	4,220.1 (13.6)	3,635.3 (Δ13.9)	4,663.8 (28.3)	5,552.1 (19.0)	5,478.7 (Δ1.3)
수입(CIF) (증감률)	4,352.7 (22.0)	3,230.8 (Δ25.8)	4,252.1 (31.6)	5,244.1 (23.3)	5,195.8 (Δ0.9)
무역수지	Δ132.7	404.5	411.7	308.0	282.9
고용동향 (천명, %)					
경제활동인구	24,347	24,394	24,748	25,099	25,501
취업자 (고용률)	23,577 (59.5)	23,506 (58.6)	23,829 (58.7)	24,244 (59.1)	24,681 (59.4)
실업자 (실업률)	769 (3.2)	889 (3.6)	920 (3.7)	855 (3.4)	820 (3.2)
물가동향 (2010=100, %)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대비)	94.5 (4.7)	97.1 (2.8)	100.0 (3.0)	104.0 (4.0)	106.3 (2.2)
생산자물가지수 (전년대비)	96.5 (8.6)	96.3 (Δ0.2)	100.0 (3.8)	106.7 (6.7)	107.5 (0.7)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동향

2012년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수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기가 더욱 빠르게 위축되었으며, 중소제조업 생산지수는 2009년부터 이어진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하며 전년보다 1.8% 하락한 125.8을 기록했다. 또한 제조업 평균가동률,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제조업 가동률 지수 모두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중소제조업 전체의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도 16.6%로 전년대비 0.2% 하락했다.

글로벌 재정위기 확대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중소기업 자금여건도 다소 악화되어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였으며, 침체된 경기진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등의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연 5.66%로 전년대비 0.34%p 하락하였다. 이런 가운데서, 연간 신설법인 수는 정부의 강력한 창업촉진정책 강화 추진과 베이비부머세대 퇴직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한 74,162개를 기록하며, 2000년 이후의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중소기업 관련 주요지표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중소제조업 생산동향					
중소제조업 생산지수 (2005=100 기준)	113.1	107.2	122.8	128.1	125.8
설비투자 실시업체비율					
중소제조업(%)	13.9	15.4	16.9	16.8	16.6
- 중화학	16.2	17.2	19.2	19.0	18.1
- 경공업	10.8	12.8	13.1	13.4	14.1
산업활동 동향					
제조업 평균가동률(%)	77.6	74.4	80.9	79.9	77.8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69.3	68.3	72.1	72.2	71.1
제조업 가동률지수 (2005=100 기준)	97.2	93.8	101.7	100.5	97.5
창업 및 부도동향					
신설법인 수(A) (개)	50,855	56,830	60,312	65,110	74,162
부도법인 수(B) (개)	1,886	1,364	1,142	967	890
창업배율(A/B) (%)	27.0	41.7	52.8	67.3	83.3
부도업체 수 (개)	2,735	1,998	1,570	1,359	1,228
어음부도율 (%)	0.03	0.03	0.03	0.02	0.07
금융동향					
대출잔액 (원화대출, 연말, 조원)	중소기업 400.3 대기업 59.4	중소기업 430.7 대기업 75.5	중소기업 429.7 대기업 87.3	중소기업 441.4 대기업 115.1	중소기업 446.8 대기업 142.2
대출금리(신규액기준) (연 %)	중소기업 7.31 대기업 6.79	중소기업 5.65 대기업 5.61	중소기업 5.68 대기업 5.25	중소기업 6.00 대기업 5.50	중소기업 5.66 대기업 5.18
대출연체율 (연말, %)	중소기업 1.70 대기업 0.34	중소기업 1.09 대기업 0.35	중소기업 1.30 대기업 0.35	중소기업 1.34 대기업 0.25	중소기업 1.30 대기업 0.90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통계청, 한국은행

중소기업육성시책

기본방향

정부는 2012년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정책비전을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로 세우고 중소기업 체질강화를 통한 위기관리 선제적 대응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다.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

추진 과제

1. 위기관리 사전준비

- ① 자금 유동성 애로 선제적 차단
- ②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완화
- ③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일자리 유지)

2. 청년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① 창업의지와 기술이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② 글로벌 창업을 통해 더 큰 세계시장 공략
- ③ 재도전 환경 조성 및 도전정신 함양

3. 소상공인·전통시장 운기 확산

- ① 성과가 있는 분야를 더욱 발전
- ② 생업 안전망 확충 및 영세업종 지원기반 강화
- ③ 소상공인 정책공감대 확산

4. 공생발전과 FTA활용 확대

- ① 공생발전 기업문화 확산
- ② 공공시장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 ③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5.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강화

-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 ② 현장소통 강화 및 지원사업 효율화

자료: 중소기업청

추진실적

정부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지속 등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하에서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 강화 및 지속성장,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1)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와 판로애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보증 : 71.2조, 정책자금 3.6조)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구매를 71.1조로 확대하였다.

'12년 2월에는 기업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진단→처방→치유」의 종합병원식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의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였다. (4,195개사 치유)

2)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창업초기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촉진을 위하여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신설(1,300억원)하고 창업초기기업 전용펀드를 결성('11)760→('12)1,747억원)하였으며, 엔젤과 정부가 창업초기기업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조성(770억원)하였다.

벤처투자 회수여건 개선을 위하여 개인투자자 및 투자조합의 중소·벤처기업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세컨더리펀드(765억원)를 조성하였으며, 선도 벤처기업과 창업기업간 M&A에 정부가 1:1로 매칭투자하는 'M&A 매칭펀드(305억원)'를 조성하였다.

창업에 대한 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12.5)하고, 기업회생·파산시 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면 기업인의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조정되는 부종성의 원칙을 도입('12.11)하였다. 또한 재창업 전용 정책자금을 확대(('11)125억→('12)200억원)하고 힐링캠프식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재창업 지원 기반을 구축하였다.

3) 전통시장·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지원을 위하여 교육 인프라를 갖춘 민간기관 50개를 '소상공인창업학교'로 지정하였고, 선배상인이 경영노하우를 전수하는 '창업인턴제'를 운영하였다. 또한 24시간 소상공인 전용방송 yes-TV('12.4 개국)를 통해 점포운영 노하우 및 성공사례를 전파하였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해 유망 프랜차이즈를 수준평가(120개)를 통해 발굴하였고,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 1만개를 육성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물류센터 확대(24개),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자금(5,050억원), 희망드림론(616억원)을 지원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확대(('11) 2,224 → ('12) 4,258억원) 하였으며,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확산('12 누계 : 497개 기관, 906개 시장)했다. 전통시장 고객에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

아케이드 설치를 확대하였으며,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시행,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을 확대(('11)누계 24 → ('12) 39개) 지정하여 소비자의 전통시장 유입 촉진에 기여하였다.

4)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기반 조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하여 제과점업, 음식점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 21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적합업종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적합업종 신고센터' 운영(동반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확충하고(('11)1,114→('12)3,774건) 국가 R&D 사업의 기술자료 임치를 의무화('12.3)하였다. 또한 사이버 공격과 온라인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지킴서비스'를 확대(('11) 253개사 → ('12) 521개사)실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수·위탁 거래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표준약정서로 계약 체결하고 100% 현금결제를 실시하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등 우대조치하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업종별 공정거래를 정착하고, 불공정 거래에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중소기업의 지원체감도 등이 포함된 '동반성장지수'를 발표('12.5, 11년 평가대상기업 56개 대기업)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민·관 R&D 협력펀드를 확대(('11) 16개사, 3,930억원 → ('12) 22개사, 4,380억원) 조성하였으며,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투자재원 출연 및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율 확대를 위해 2.3억원 미만의 소액 물품·용역에 대한 중소기업과의 우선조달계약을 의무화했으며, 판로지원법을 개정('12.6)하여,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기간 경쟁 입찰 참여를 배제하였다.

5) 미래 성장 산업 집중 육성 및 기술개발 역량강화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해 녹색·신성장 등 7대 전략산업을 중점 지원(75%, 2.7조원)하였으며, 창업·수출·녹색 등 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보증 공급을 확대(('11) 38.1→('12)44.1조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을 지속 확대(('10) 5,607 → ('11) 6,288 → ('12) 7150억원)하고, 민관 R&D 협력펀드의 기술개발 참여범위를 유통업 및 건설업까지 확대하였다.



01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 2012년 사업추진방향 및 실적
 - 정책자금 융자
 - 건강진단 및 기술지원
 - 연수 및 인력지원
 - 마케팅 및 글로벌협력
 - 정보제공

2012년 사업추진 방향 및 실적

2012년도에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 및 내수불안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중소기업 경기상황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창업활성화, 시장소외분야 지원 확대, 창업초기·수출초보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중진공이 2012년도에 추진한 중소기업 지원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정책기조에 대응, 정책자금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주요 목표로 28,334개 업체에 3조 6,22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조기집행 정책에 맞추어 상반기에 예산의 66.7%를 집행하여 중소기업 경영환경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정책자금은 단순 자금 공급에서 탈피하여 정책자금과 기업 경영혁신을 연계 지원하는 진단기반 자금을 본격 추진하여 '12년 융자사업 예산 중 1조 4,765억원을 진단 기반 자금으로 추진하였으며, 직접대출기업, 창업초기기업 및 뿌리산업 영위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진단과 자금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여 경영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였다.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창업기업지원자금 1조 3,900억원을 8,266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특히 아이디어에 기반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전용자금(1,300억원)을 신설하였다.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업전환지원자금 1,650억원을 304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개발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080억원을 1,240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초기 및 기술기반사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투·용자의 특징을 혼합한 투융자복합금융방식으로 1,500억원을 지원하여 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 지원 및 성장이익 공유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376개 업체에 2,778억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지원자금은 600여억원 증액한 5,050억원을 15,128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였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설투자 위축 우려로 중소기업 시설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은 1,452개 업체에 8,550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2년도에는 융차지원대상을 정비해서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전체 자금 중 전략산업에 27,318억원(86.7%)을 지원하였다. 또한 고용창출기업을 우대 지원하여 1,292개업체를 통해 8,047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또한, 작년도 시범운영한 앰블런스맨 제도를 상설 시스템으로 정착하여, 집중호우, 태풍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복구하고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건강진단 및 기술지원사업은 중기청, 신보, 기보와 업무협약을 맺어 건강진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총 3,208개사에 진단을 실시하여 정책자금 융자 등 총 2,829건의 시책사업을 연계 지원하였다.

또한 2012년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주

관기관으로 지정되어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지속 성장, 창업기업 과제)을 688개 기업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핵심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10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셋째, 연수사업은 중소기업임직원 74,923명을 대상으로 기술, 품질, 경영, IT, 디지털, 기업혁신 등의 연수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이 새로운 생산기술 및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체계적인 창업 준비를 통한 청년층의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설립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지방 3개 지역(광주, 창원, 경산)에 추가 개소하였으며, 청년CEO 213명 양성, 고용창출 686명, 지적재산권 584건 출원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해, 일본, 미국, 인도 등으로부터 원천기술, IT분야의 외국 전문 기술인력 216명 도입을 지원하였다. 또한 일하기 좋은 으뜸 중소기업을 발굴, 청년 구직자들에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인식해소에 기여하는 '스마일스토리지(知)' 사업을 신규로 수행하여, 134개사 481명 취업을 지원했다.

넷째, 마케팅 및 글로벌협력사업은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수출지원사업에 2,826개 업체가 참여하여 6,8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온라인으로는 Gobizkorea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2012년까지 중소기업 외국어홈페이지를 3,688개 제작하였고, 32,631개 기업정보와 136,203개의 상품정보를 DB로 구축하였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HIT500 제품 510개 발굴하고, HIT500제품 전용 오프라인 판매·전시장(HIT500 PLAZA) 확대 운영 및 HIT500제품 전용 온라인 판매·전시장 운영 등 판매 지원을 통해 연간 951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판로지원 사업으로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2012년 신규사업으로 착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의 장점을 갖춘 2개 품목 7개의 SMART 제품을 발굴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해외협력기반 조성 및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해외협력발전 498건, 산업협력사절단 10회, 산업기술협력관 교환 26회, 개성공단 컨설팅 10개사, 개성공단 법인장 연수 21명 등 27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에도 중진공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국가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내·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성장·발전해갈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경영지원, 인력, 판로·수출지원 등 각종 시책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2012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자금 주요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자금	추진실적	
	사업량	실적
정책자금융자		3,622,987
창업기업지원	8,266개 업체	1,389,996
신성장기반지원	1,452개 업체	855,000
긴급경영안정	1,376개 업체	277,848
소상공인지원	15,128개 업체	504,993
개발기술사업화	1,240개 업체	308,000
투융자복합금융지원	568개 업체	150,000
사업전환	304개 업체	165,000
자본지출		100,443
모태조합출자	1조합	70,000
전산시스템구축		3,578
연수시설및장비구축		6,366
글로벌리더십연수원건립		5,401
중진공 본사 지방이전		15,098
시책지원		72,559
연수사업	74,923명	12,698
중소기업정보제공	8,264회원	1,796
중소기업거래지원	510개 업체	217
해외산업협력지원		2,740
APEC혁신센터		342
수출인큐베이터	251개 업체	7,449
국내수출지원	2,826개 업체	1,787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3,208개 업체	8,230
사업전환촉진지원		1,558
정책자금안정화지원		28,500
온라인수출지원	2,458개 업체	2,262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	216명	3,394
레저장비산업발전	10과제	1,586
계		3,823,839

정책자금 융자

정책자금 융자사업 개요

2012년에는 유럽발 재정위기 지속 및 국내 성장률 둔화에 따른 경제 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창업·소기업 성장 잠재력 확충 및 자금조달 애로기업의 경영안정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창업·전략산업 영위기업 중점 지원을 통해 유망 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전체 자금 중 전략 산업에 27,318억원(86.7%)과 시설자금에 18,917억원(67.5%)을 지원하였으며, 건강진단 기반으로 정책자금을 1.15조원 지원하여 정책자금 지원효과성 제고 및 중소기업 위기 대응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강화를 위하여 정책대상별 특화자금을 신설하였다. 아이디어 기반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전용창업자금(1,300억원)을 신설하였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공인의 경쟁력 위하여 소공인 특화자금(650억원)을 신설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 등 지원성과가 큰 창업초기기업(업력 5년미만)에 대하여 15,791억원(50.1%)을 지원하였으며, 고용창출기업을 우대 지원하여 1,292개업체를 통해 8,047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작년도 시범운영한 앰블런스맨 제도를 상설 시스템으로 정착하여, 집중호우, 태풍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복구하고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및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창업 자금을 202억원 집행함에 따라, 실패 중소기업의 신용회복 지원과 자금지원을

통해 사업재기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

투융자복합금융의 확대노력에 따라, 지원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방식으로 1,074억원을 집행하였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성장공유형 방식으로 426억원을 집행하는 등 미래 성장가치 중심의 다양한 투융자복합 지원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였다.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기업자금은 창업 활성화 및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으로, 1998년 창업기업 지원자금을 시작으로, 2010년 재창업자금, 2012년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신설하여 정책목적성에 맞는 특화된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창업기업자금은 예산 13,900억원을(창업기업지원 1조 2,384억원, 청년전용창업 1,316억원, 재창업 2,000억원) 8,266개 업체에 집행하였다.

2012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창업기업	1,238,400	4,661	2,417,212	3,118	1,362,638	3,065	1,238,210	
재창업	20,000	231	69,334	126	20,689	131	20,212	
청년전용창업	131,600	5,637	170,497	5,101	133,403	5,070	131,573	
계	1,390,000	10,529	2,657,043	8,345	1,516,730	8,266	1,389,995	

가. 창업기업지원자금

1)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설립 5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금으로, 2012년까지 34,503개사에 9조 9,811억원을 집행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2년도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성장유망 창업·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12,384억원을 조성하여 연 예산 100%를 집행하였다.

2012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238,400	4,661	2,417,212	3,118	1,362,638	3,065	1,238,210

창업자금 지원업체의 업력을 살펴보면, 설립 1년 미만 업체에 4,723억원(38.1%), 설립 3년 미만 업체에 4,118억원(33.3%), 설립 5년 미만 업체에 3,199억원(25.8%)이 지원되어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지원이라는 목적을 적절히 수행하였다.

2012년 업력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년미만	1,474	937,886	981	533,468	948	472,333
3년미만	1,887	824,630	1,246	444,754	1,225	411,816
5년미만	1,260	631,364	861	364,540	832	319,917
5년 이상	40	23,332	30	19,876	60	34,144
계	4,661	2,417,212	3,118	1,362,638	3,065	1,238,210

* 5년이상 기업의 대여실적은 '11년도 신청기업의 대출금액

매출액 규모는 창업 초기기업을 집중지원함에 따라 매출액 5억원미만 기업이 50.5%(6,250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전체 예산 중 93.5%(11,570억원)를 집행하였다.

2012년 매출액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5억원미만	2,667	1,373,454	1,640	722,134	1,565	624,957	50.5
5 ~ 10억원미만	496	198,139	348	106,868	348	101,914	8.2
10 ~ 50억원미만	1,105	553,842	809	342,355	824	332,462	26.9
50 ~ 100억원미만	248	156,941	203	104,846	207	97,715	7.9
100 ~ 300억원 미만	133	123,964	109	82,405	112	79,383	6.4
300억원이상	12	10,872	9	4,030	9	1,779	0.1
계	4,661	2,417,212	3,118	1,362,638	3,065	1,238,210	100.0

지역별로는 경기 18.3%(2,261억원), 경남 11.3%(1,396억원), 경북 11.2%(1,384억원) 순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67.4%(8,34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서울	563	241,854	406	137,478	395	126,458	10.2
인천	189	96,523	109	56,094	100	50,947	4.1
경기	1,158	458,712	729	250,821	713	226,105	18.3
부산	355	132,796	188	64,764	178	55,555	4.5
대구	199	83,355	159	56,518	151	48,894	3.9
광주	132	75,845	92	52,717	93	51,175	4.1
대전	129	55,179	87	30,454	90	26,390	2.1
울산	93	64,216	51	35,250	64	46,213	3.7
강원	161	80,934	125	51,852	111	29,397	2.4
충북	237	147,954	194	98,535	190	81,164	6.6
충남	215	154,168	148	85,766	144	72,866	5.9
전북	194	118,479	128	71,107	134	72,492	5.9
전남	221	132,488	176	86,087	161	62,462	5.0
경북	439	295,448	277	143,903	277	138,382	11.2

경남	350	264,811	227	130,678	240	139,590	11.3
제주	26	14,450	22	10,614	24	10,120	0.8
계	4,661	2,417,212	3,118	1,362,638	3,065	1,238,210	100.0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중진공 직접취급 중 직접대출 지원액이 49.7%(6,152억원)이며, 이 중 신용 대출이 36.7%(2,255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합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622,955	225,505	188,050	201,700	615,255	1,238,210

3) 제도개선사항

2012년에는 창업 초기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하여 창업기업 지원자금의 지원 업력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였으며, 신산업분야의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전략산업에서 일반산업으로 확대하였다.

나. 재창업자금

1) 사업개요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2년도에는 131개 업체에 202억원을 집행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2년도 재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수요 발굴 및 제도개선 노력으로 집행실적이 전년(90개업체, 124억원)대비 63% 향상되었으며, 실패한 기업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2012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00	231	69,334	126	20,689	131	20,213

재창업자금은 전액 직접대출로 취급되었으며,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신용대출 비중이 68.9%로 집행되어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재창업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13,920	700	5,593	-	20,213

3) 제도개선사항

2012년에는 실패기업인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융자한도(5억원→10억원) 및 지원대상 확대(건설업, 자동차 판매업 추가), 수요자 중심의 생산지원금융 운영기준 개편 등을 시행하여 신청 및 승인률 제고와 지원기업수 증가를 도모하였다.

다. 청년전용창업자금

1) 사업개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청년창업자에게 저금리(2.7% 고정금리)의 창업자금과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2012년도에는 5,070개 업체에 1,316억원을 집행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2년도에는 융자상환금 조정형으로 1,169개사 700억원을 지원하여 실패한 창업자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원만한 창업생태계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민간금융매칭형으로는 3,901개사 616억원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창업분위기 조성 및 창업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2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융자상환금조정형	1,736	108,924	1,200	71,830	1,169	70,000
민간금융매칭형	3,901	61,573	3,901	61,573	3,901	61,573
전체	5,637	170,497	5,101	133,403	5,070	131,573

* 민간금융매칭형 실적은 중진기금 기준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업종별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대여 금액 중 56.8%(734억원)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업종에 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미래형 산업 육성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제조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융자상환금조정형	768	37,158	401	32,842	1,169	70,000
민간금융매칭형	2,367	36,248	1,534	25,325	3,901	61,573
전체	3,135	73,406	1,935	58,167	5,070	131,573

* 민간금융매칭형 실적은 중진기금 기준

3) 제도개선사항

2012년에는 창업초기기업의 사업조기 정착 및 상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융자상환금 조정형 청년창업자금 지원기업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융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은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3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원인 융복합(협동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신성장기반자금의 예산은 8,550억원으로 총 예산 8,55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2년 신성장기반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 금액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신성장기반	705,000	1,640	1,236,064	1,250	762,125	1,243	705,000
융복합	150,000	170	182,742	213	180,294	209	150,000
계	855,000	1,810	1,418,806	1,463	942,419	1,452	855,000

가. 신성장기반

1) 사업개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과 초기 가동비, 기술개발비 등 운전자금을 지원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2년도에는 1,243개사에 7,05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신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2012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705,000	1,640	1,236,064	1,250	762,125	1,243	705,000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81.0%,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19.0%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편이며, 업종별로는 기계금속 업종이 50.0%로 가장 높고, 섬유화학 13.0%, 잡화음식료 11.7%, 전기전자 6.3% 순이었다.

2012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비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647	570,616	525	376,500	524	352,366	50.0
전기전자	109	87,970	75	47,930	79	44,527	6.3
섬유화학	220	168,841	156	91,797	160	91,491	13.0
잡화음식료	202	181,621	137	99,603	133	82,599	11.7
기타	462	227,016	357	146,295	347	134,017	19.0
계	1,640	1,236,064	1,250	762,125	1,243	705,000	100.0

지역별로는 경기 21.9%(1,541억원) 등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2,734억원(38.9%), 수도권 이외 지역이 4,316억원(61.2%)으로 나타나,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2012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비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서울	213	134,051	151	80,541	148	77,312	11.0
인천	78	69,385	66	54,113	59	41,965	6.0
경기	439	319,221	304	164,901	301	154,095	21.9
부산	92	71,500	72	50,131	73	48,875	6.9
대구	81	57,380	76	40,233	70	33,938	4.8
광주	82	43,874	65	31,186	57	21,057	3.0
대전	47	34,883	39	22,472	38	19,978	2.8
울산	46	32,742	31	14,970	34	14,681	2.1
강원	34	26,549	28	19,461	30	11,451	1.6
충북	62	47,710	55	34,590	55	33,724	4.8
충남	50	41,398	42	42,214	50	37,545	5.3
전북	39	29,157	32	20,952	37	23,419	3.3
전남	56	36,630	41	20,586	42	20,227	2.9
경북	140	128,080	107	71,899	102	71,821	10.2

경남	169	155,963	134	90,172	138	91,470	13.0
제주	12	7,541	7	3,704	9	3,442	0.5
합계	1,640	1,236,064	1,250	762,125	1,243	705,000	100.0

종업원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50인 이하의 소기업에 전체 신성장기반자금 예산의 75.6%(5,330억원)를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였다.

2012년 종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비율	금액	비율
5인이하	173	13.9	48,147	6.8
6 ~ 20인이하	488	39.3	212,719	30.2
21 ~ 50인이하	387	31.1	272,088	38.6
51 ~ 100인이하	142	11.4	116,534	16.5
101 ~ 300인이하	53	4.3	55,512	7.9
계	1,243	100.0	705,000	100.0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신성장기반자금 총 7,050억원의 지원액 중 직접대출이 35.2%(2,480억원)이며, 이 중 신용대출이 31.4%(780억원), 보증서 대출이 29.3%(725억원), 부동산 대출이 39.3%(976억원)로 나타났다.

2012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456,964	77,965	72,500	97,571	248,036	705,000

3) 제도개선사항

시설자금 적정성 제고 및 자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공개계약 제도를 도입하였고, 자금사정 시 공개입찰 시설에 대한 용자 한도를 확대(소요금액의 80% → 90%이내)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무역·수출 안전시설을 시설자금 용도에 추가함으로

써 시설자금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나. 융복합(협동화)사업

1) 사업개요

융복합(협동화)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일정한 지역에 공장과 부대시설, 생산·실험연구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투자비를 절감하며, 상호 경영정보 및 기술교류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다.

2) 사업 추진 현황

2012년 213개 사업장(1,803억원)을 신규로 승인하였으며, 계속 및 신규승인 사업장 209개를 대상으로 총 1,500억원을 집행하여 예산 100% 집행을 달성하였다.

협동화 유형별로는 집단화가 1,314억원으로 87.6%, 협업화가 124억원으로 8.3%, 협업사업이 51억원으로 3.4%, 공동화가 11억원으로 0.7% 수준으로 집행되었다.

2012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승인		지원		승인		지원	
	사업장	금액	사업장	금액	사업장	금액	사업장	금액
서울	5	5,800	5	11,736	12	9,621	15	11,657
부산	2	38,163	10	9,478	26	12,521	25	12,387
대구	3	44,552	5	31,840	11	14,111	14	17,812
인천	6	17,250	3	9,100	1	1,000	1	1,000
광주	1	7373	2	6,928	2	2,620	2	1,300
대전	4	26,473	6	7,577	1	1,067	2	1,625
울산	1	3,295	4	9,035	11	10,243	10	6,862
경기	13	101,533	19	62,905	67	63,386	69	47,776
강원	4	5,370	7	3,180	7	14,212	6	8,258
충북	3	3,400	1	600	10	2,200	9	2,000
충남	3	25,404	5	7,601	8	3,457	9	3,750
전북	1	5,950	2	7,891	6	4,264	6	4,730
전남	1	4,717	1	1,170	4	3,975	3	3,730
경북	2	17,513	3	8,108	30	22,520	25	14,857

경남	2	19,908	4	4,360	15	14,497	11	11,656
제주	1	300	1	300	2	600	2	600
계	52	327,001	78	181,809	213	180,294	209	150,000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 또는 내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수출금융 확보 애로 및 재해피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거 구조개선자금 내 특별경영안정사업의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을 통합하였고, 2009년부터 사업전환지원사업의 회생특례지원자금을 통합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개편하였다.

2012년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예산 2,500억원을(일반경영안정사업 1,000억원, 수출금융지원사업 975억원, 재해복구지원사업 383억원, 일시적경영애로지원사업 142억원) 전액 집행하였다.

2012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일반경영안정사업	100,000	999	276,780	676	101,762	668	100,000
수출금융지원사업	97,503	339	119,753	277	65,700	352	125,351*
재해복구지원사업	38,332	319	58,518	308	41,095	298	38,332
일시적경영애로 지원사업	14,165	70	22,322	60	15,233	58	14,165
계	250,000	1,727	477,373	1,321	223,790	1,376	277,848

주 - 수출금융지원사업 대여금이 예산을 초과하는 것은 동사업이 회전대출로 운영되기 때문임

가. 일반경영안정사업

1) 사업추진현황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10억~50억원 미만 기업이 43.5%(435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전체 예산 중 76.7%(768억원)를 집행하였다.

2012년 매출액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5억원미만	76	14,140	36	3,710	35	3,610	3.6
5~10억원미만	82	17,065	45	5,010	44	4,910	4.9
10~50억원미만	473	119,210	321	44,160	320	43,518	43.5
50~100억원미만	211	66,445	153	25,440	150	24,720	24.7
100~300억원미만	137	52,120	106	20,642	104	20,442	20.4
300억원이상	20	7,800	15	2,800	15	2,800	2.8
계	999	276,780	676	101,762	668	100,000	100.0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88.6%로 생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구입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동 사업의 목적에 충실하게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계·금속 39.3%, 섬유·화학 22.8%, 잡화·음식료 19.8% 순으로 지원되었다.

2012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386	107,450	258	39,452	257	39,290	39.3
전기전자	71	20,980	47	6,980	46	6,700	6.7
섬유화학	192	55,222	143	23,490	140	22,750	22.8
잡화음식료	193	54,303	132	19,990	131	19,790	19.8
기타	157	38,825	96	11,850	94	11,470	11.4
계	999	276,780	676	101,762	668	100,000	100.0

종업원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50인 이하의 소기업에 전체 지원업체수의 91.3%(610개) 총 지원금액의 89.0%(890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종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5인이하	83	9,248	12.4	9.2
6~20인이하	321	43,862	48.1	43.9
21~50인이하	206	35,890	30.8	35.9
51~100인이하	40	7,600	6.0	7.6
101~300인이하	18	3,400	2.7	3.4
계	668	100,000	100.0	100.0

지역별로는 경기 192억원(19.2%), 경남 115억원(11.5%), 경북 110억원(10.0%) 순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344억원(34.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서울	91	24,940	71	9,930	69	9,850	9.8
인천	52	14,430	33	5,850	30	5,350	5.3
경기	194	57,715	122	19,450	123	19,200	19.2
부산	84	23,960	50	6,100	49	5,900	5.9
대구	48	12,560	39	5,700	38	5,500	5.5
광주	27	5,440	23	3,140	23	3,090	3.1
대전	28	6,262	19	2,450	19	2,450	2.4
울산	22	7,750	14	3,200	11	2,250	2.2
강원	17	3,700	12	1,800	12	1,800	1.8
충북	50	15,750	37	5,250	37	5,250	5.3
충남	92	21,750	55	7,700	53	7,300	7.3
전북	36	8,185	30	5,180	29	4,950	5.0
전남	28	5,840	23	3,812	27	4,360	4.4
경북	97	27,693	58	9,950	57	9,950	10.0
경남	123	38,505	82	10,950	83	11,500	11.5
제주	10	2,300	8	1,300	8	1,300	1.3
계	999	276,780	676	101,762	668	100,000	100.0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직접대출 지원액이 842억원(84.2%)로 직접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 중 신용대출이

789억원(93.7%), 보증서 대출이 22억원(2.6%), 부동산 대출이 31억원(3.7%)를 나타내 직접 신용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15,850	78,870	2,160	3,120	84,150	100,000

2) 제도개선사항
일반경영안정지원사업은 시중의 자금수요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역본부의 자금수요를 조사하여, 설·추석 등 시중의 자금수요가 급증할 시기에 적절히 대응하여 자금을 집행하였다.

나. 수출금융지원사업

1) 사업추진현황

수출금융지원사업은 352개사에 1,254억원을 회전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 애로 및 무역금융 애로 해소에 기여하였다.

2012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97,503	339	119,753	277	65,700	352	125,351*

주 - 회전대출을 포함한 실적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90.8%,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9.2%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편이며, 업종별로는 기계금속 업종이 36.3%로 가장 높고, 섬유화학 28.9%, 잡화음식료 13.9%, 전기전자 11.7%순이었다.

2012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117	47,419	93	23,950	119	45,460	36.3
전기전자	42	16,829	33	7,854	43	14,709	11.7
섬유화학	80	26,700	72	17,366	97	36,234	28.9
잡화음식료	48	14,050	39	9,300	47	17,475	13.9
기타	52	14,755	40	7,230	46	11,473	9.2
계	339	119,753	277	65,700	352	125,351	100.0

종업원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50인 이하의 소기업에 전체 지원업체수의 75.0%(264개) 총 지원금액의 69.5%(871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종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5인이하	38	9,503	10.8	7.6
6~20인이하	111	31,398	31.5	25.0
21~50인이하	115	46,234	32.7	36.9
51~100인이하	63	25,886	17.9	20.7
101~300인이하	25	12,330	7.1	9.8
계	352	125,351	100.0	100.0

지역별로는 경기 267억원(21.3%), 인천 62억원(4.9%), 서울 125억원(10.0%) 등 수도권에서 453억원(36.2%)을 지원하였으며, 경북지역에 12.7%인 160억원을 집행하는 등 비수도권에 800억원(63.8%)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서울	43	15,270	31	6,430	38	12,491	10.0
인천	15	7,549	10	2,580	18	6,180	4.9
경기	85	29,814	68	14,485	85	26,651	21.3
부산	19	7,800	13	2,770	14	4,590	3.7
대구	15	4,950	13	3,550	18	8,400	6.7
광주	15	4,680	14	3,465	13	3,680	2.9
대전	4	1,680	5	1,380	8	2,680	2.1
울산	5	1,700	8	2,550	7	3,140	2.5
강원	9	2,050	7	1,300	8	2,300	1.8
충북	20	7,040	15	4,440	18	7,220	5.8
충남	15	6,400	15	4,900	15	9,050	7.2
전북	13	3,590	12	2,790	16	5,220	4.2
전남	8	2,300	6	1,300	8	3,200	2.6
경북	28	9,840	23	6,670	35	15,976	12.7
경남	39	13,560	32	6,260	45	13,145	10.5
제주	6	1,530	5	830	6	1,428	1.1
계	339	119,753	277	65,700	352	125,351	100.0

주 -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예산 내에서 6개월 이내의 회전 금융으로 운용되어 예산보다 집행금액이 많음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지원하고 있으며 담보별 지원현황을 보면 신용대출이 1,206억원(96.2%), 기타 대출이 48억원(3.8%)로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직접대출		
	신용	기타	계
담보별	120,553	4,798	125,351

2) 제도개선사항

2011년 도입한 '수출금융 5년 초과 이용기업에 대해 졸업제'를 정착하여 수출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지원 편중 방지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였다.

다. 재해복구지원사업

1) 사업추진현황

연중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태풍(볼라벤, 산바 등) 피해기업(259개업체, 328억원)과 여름철 집중호우(37개업체, 54억원)피해기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총 298개사 383억원을 지원하였다.

2012년 재해유형별 사업추진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연간계획	신청		추천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태풍		276	51,307	268	35,118	259	32,822
폭우	38,332	38	6,311	36	5,177	37	5,410
기타		5	900	4	800	2	100
계	38,332	319	58,518	308	41,095	298	38,332

전체지원액 중 79.0%인 303억원을 직접대출로, 직접대출의 94.1%를 신용으로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소요비용에 신속한 신용대출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2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8,053	28,481	1,768	30	30,279	38,332

2) 제도개선사항

2011년 도입된 앰블런스 맨 제도를 정착 및 내실화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신속한 복구 및 경영정상화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라. 일시적경영애로지원사업

1) 사업추진현황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 워크아웃 진행 기업, 외화대출 피해기업 등 일시적 애로에 처한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적기 유동성을 공급하여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

2012년 기업유형별 사업추진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연간계획	신청		추천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대형사고 피해		33	11,170	30	8,430	28	7,430
일시적 매출감소	14,165	4	850	4	500	4	500
자금 수급애로		3	1,000	2	400	2	400
기타		30	9,302	24	5,903	24	5,835
계	14,165	70	22,322	60	15,233	34	14,165

전체지원액 중 67.2%인 95억원을 직접대출로, 직접대출의 100.0%를 신용으로 집행하여 중소기업의 급격한 자금경색과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상황 속에서 신속한 신용대출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2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4,650	9,515	-	-	9,515	14,165

2) 제도개선사항

대내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 및 반영하여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지원 대상을 신속히 추가하여 운영하였다.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고용유지 기업 및 주요거래처 도산 등 결제조건 악화로 인한 매출채권회수 지연 기업을 추가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여 해당기업의 일시적 애로사항을 해소하였다.

소상공인지원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은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98년부터 시작되었다. 소상공인의 창업안정 및 경영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유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였다.

'10년 이후에는 SSM의 급증으로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 슈퍼마켓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나들가게 사업'의 일환으로 '나들가게자금'이 신설되었다. 또한 '12년도에는 소상공인지원자금 내에 소공인 특화자금을 신설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소공인을 중진공이 직접대출로 지원하고 있다.

가. 소공인특화자금

1) 사업개요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기반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미만의 소공인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소상공인지원금을 통해 집행되는 소상공인지원자금과 달리 중진공이 직접 집행하며 2012년도에는 931개 업체에 650억원을 집행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2년도에는 931개사 65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배정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 우수한 소공인의 사업화 지원을 도모하였다.

2012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65,000	1,345	117,708	943	65,732	931	65,000

소공인 특화자금은 100% 직접대출을 하였으며, 신용으로 99.1%를 지원하여 우수한 기술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무구조와 담보력이 취약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하게 자금을 지원하였다.

2012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64,403	200	397	65,000	65,000

나. 소상공인지금

1) 사업개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소상공인진흥원(지역센터)에서 '자금 지원 대상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담보방법에 따라 대출 취급 금융기관(국민은행 등 19개)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집행된다.

* 소상공인 여부(사업자등록증,상시근로자수), 사치·향락 업종 등 정부지원 제한업종 점검 후 발급

2) 사업추진현황

2012년 소상공인지금은 14,197개사에 4,393억원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 창업·경영활성화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소상공인지원자금 실적 (단위: 억원, 개, %)

구분	예산(A)	대여		집행률(B/A)
		업체수	금액(B)	
2001년	3,700	14,313	3,700	100.0
2002년	3,500	10,310	3,185	91.0
2003년	3,500	13,914	3,496	99.9
2004년	3,500	14,756	3,456	98.7

2005년	5,100	19,605	4,642	91.0
2006년	4,552	16,300	4,395	96.6
2007년	3,457	12,449	3,442	99.6
2008년	2,890	8,531	2,672	92.5
2009년	10,967	46,457	10,966	100.0
2010년	3,000	10,582	3,000	100.0
2011년	4,450	15,882	4,450	100.0
2012년	4,400	14,197	4,393	99.8
계	53,016	197,296	51,797	97.7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2000년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고려하여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2) 사업추진현황

2012년도에는 1,240사에 3,08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예정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여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도모하였다.

2012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개, 백만원)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308,000	1,645	602,026	1,252	326,911	1,240	308,000

업종별 지원실적을 보면 기계·금속 1,529억원(49.7%), 전기·전자 517억원(16.8%), 섬유·화학 559억원(18.2%) 순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91.9%인 2,829억원이 지원되었다.

2012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696	276,294	557	160,452	553	152,933	49.7
전기전자	328	107,785	242	53,912	238	51,720	16.8
섬유화학	254	97,904	198	59,356	198	55,906	18.2
잡화음식료	127	48,850	100	27,441	97	22,418	7.3
기타	240	71,193	155	25,750	154	25,023	8.1
계	1,645	602,026	1,252	326,911	1,240	308,000	100.0

지역별로는 경기도 838억원(27.2%), 서울에 333억원(10.8%)이 지원되는 등 수도권에 총 1,360억원(44.2%), 수도권외 지역에 1,719억원(55.8%)이 지원되었다.

2012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서울	287	91,124	198	35,636	194	33,301	10.8
인천	116	44,234	79	22,480	77	18,914	6.1
경기	473	170,078	356	87,972	348	83,829	27.2
부산	73	30,210	59	16,802	58	15,957	5.2
대구	64	25,818	53	15,210	53	14,734	4.8
광주	36	14,666	24	9,417	24	8,228	2.7
대전	75	24,480	66	14,950	65	13,457	4.4
울산	30	12,800	26	7,696	26	8,006	2.6
강원	33	10,660	29	6,865	30	6,601	2.1
충북	81	30,446	69	20,388	66	19,078	6.2
충남	58	26,073	46	20,000	48	17,149	5.6
전북	58	22,572	44	11,529	46	11,826	3.8
전남	40	13,920	37	10,460	37	10,172	3.3
경북	106	38,497	90	25,336	87	22,061	7.2
경남	106	44,568	69	20,713	74	23,230	7.5
제주	9	1,880	7	1,457	7	1,457	0.5
계	1,645	602,026	1,252	326,911	1,240	308,000	100.0

기술유형별로는 Inno-biz 업체에 대한 지원이 1,416억원(46.0%), 특허·실용신안 등록기술에 대한 지원이 924억원(30.0%)으로 Inno-biz 업체 보유기술과 특허등록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2012년 기술유형별 지원실적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정부시행기술지원사업	63	15,423	5.1	5.0
특허/실용신안	443	92,427	35.7	30.0
기술이전	7	1,580	0.6	0.5
Inno-biz	494	141,660	39.8	46.0
공인 인증 및 평가기술	14	4,600	1.1	1.5
기업부설연구소	219	52,310	17.7	17.0
계	1,240	308,000	100.0	100.0

기업규모별 지원실적을 보면, 종업원 수 50인 이하의 기업에 1,905억원(74.3%)이 지원됨으로서 소기업 위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인 이하의 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947억원(35.9%)에 이르고 있다.

2012년 종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5인이하	130	17,469	10.5	5.7
6 ~ 20인이하	488	93,027	39.4	30.2
21 ~ 50인이하	419	118,175	33.8	38.4
51 ~ 100인이하	138	48,402	11.1	15.7
101 ~ 300인이하	65	30,927	5.2	10.0
300인초과	-	-	-	-
계	1,240	308,000	100.0	100.0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기술개발로 인해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시중 금융권의 자금 대출이 어려운 기술개발기업에 신용대출(1,972억원, 64.0%) 위주로 중점 지원하여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2012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 계	
담보별	57,896	197,251	38,768	14,085	250,104	308,000

3) 제도개선사항

2013년에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시 직접대출을 원칙으로 하여 시중 금융권 자금 대출이 어려운 기업을 중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저작권 등록기술'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문화컨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였다.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요소를 복합한 신용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익공유형 대출과 성장공유형 대출이 있다. 2011년까지는 정책자금 예산 내에서 또 다른 융자방식의 하나로 운영하였고, 2012년에는 별도 정책자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568개사에 연 예산 1,5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2년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이익공유형 대출	110,000	662	193,459	535	112,027	518	107,354
성장공유형 대출	40,000	86	89,895	47	43,400	50	42,646
계	150,000	748	283,354	582	155,427	568	150,000

가. 이익공유형 대출

1) 사업개요

창업초기기업에 저금리 신용대출 후 지원업체의 영업성과에 따라 영업이익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연동이자로 수취하는 대출방식으로 2011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2년도에는 518개사에 1,074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초기기업의 금융비용을 완화하여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에 일조하였다.

이익공유형 지원업체의 업력을 살펴보면, 창업 3년 미만이 57.0%(612억원)로 창업초기기업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적절히 수행하였다.

2012년 업력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구성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년미만	148	40,911	112	22,692	108	22,262	20.7
1년~3년미만	243	69,434	200	39,436	199	38,920	36.3
3년~5년미만	89	25,232	69	13,330	70	13,549	12.6
5년~7년미만	38	13,035	31	7,530	29	6,480	60.0
7년이상	144	44,847	123	29,039	112	26,143	24.4
계	662	193,459	535	112,027	518	107,354	100.0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83.8%,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16.2%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편이며, 제조업 중에서도 기계금속,잡화음식료, 섬유화공, 전기전자 순으로 지원비중이 높았다.

2012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구성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268	76,253	215	46,215	204	42,318	39.4
전기전자	72	21,308	56	11,501	56	11,500	10.7
섬유화공	88	24,940	69	15,760	67	15,810	14.7
잡화음식료	110	32,713	98	21,300	94	20,385	19.0
기타	124	38,245	97	17,251	97	17,341	16.2
계	662	193,459	535	112,027	518	107,354	100.0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3.5%, 경북에 12.2%순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74.6%(8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구성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서울	60	19,693	49	9,431	48	9,230	8.6
인천	49	8,373	28	3,700	26	3,550	3.3
경기	95	24,680	78	14,465	79	14,530	13.5
부산	55	16,278	45	9,170	43	8,334	7.7
대구	25	7,350	25	5,891	24	5,550	5.2
광주	14	3,997	13	3,000	13	3,000	2.8
대전	3	750	4	700	4	700	0.7
울산	34	10,350	21	4,200	14	2,800	2.6
강원	35	9,390	31	5,450	31	5,450	5.1
충북	28	10,100	25	7,900	24	7,400	6.9
충남	12	4,050	13	3,600	12	3,470	3.2
전북	42	11,888	38	7,730	39	7,910	7.4
전남	35	12,080	32	8,450	32	8,450	7.9
경북	74	22,997	58	14,230	55	13,130	12.2
경남	84	25,843	59	11,110	59	11,110	10.3
제주	17	5,640	16	3,000	15	2,740	2.6
계	662	193,459	535	112,027	518	107,354	100.0

3) 제도개선사항

예산 확대(전년대비 183.3%)를 통해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에 지원을 강화하여 정책목적성을 제고하였으며, 이익연동이자 납부 기피 내지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이

의 적정성 점검시스템' 운용을 통해 사후관리 노력을 확대하였다.

나. 성장공유형 대출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대출방식으로 2008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2) 사업 추진 현황

2012년도에는 50개사에 426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하였다.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83.5%,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16.5%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편이며, 제조업 중에서도 기계금속, 섬유화공, 전기전자, 잡화음식료 순으로 지원비중이 높았다.

2012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구성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38	42,500	20	18,000	19	15,726	36.9
전기전자	10	8,680	7	6,500	7	5,500	12.9
섬유화공	17	17,000	9	9,000	10	9,400	22.0
잡화음식료	4	4,500	2	3,000	4	5,000	11.7
기타	17	17,215	9	6,900	10	7,020	16.5
계	86	89,895	47	43,400	50	42,646	100.0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22.0%, 서울에 15.2% 순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56.6%(24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한 결과이다.

2012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지원결정		대여		구성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서울	16	16,500	8	7,300	7	6,500	15.2
인천	5	4,200	2	1,600	3	2,600	6.1
경기	19	24,200	11	11,000	11	9,400	22.0
부산	2	2,000	2	1,500	3	2,500	5.9
대구	5	3,800	3	1,800	2	800	1.9
광주	1	1,000	-	-	-	-	-
대전	1	1,900	-	-	-	-	-
울산	-	-	-	-	1	326	0.8
강원	3	3,000	2	2,000	2	2,000	4.7
충북	4	5,000	3	3,000	3	3,000	7.0
충남	6	7,000	4	5,000	3	4,000	9.4
전북	4	3,500	3	2,500	4	2,620	6.1
전남	5	3,480	2	1,500	3	2,000	4.7
경북	8	8,115	4	4,000	4	3,700	8.7
경남	7	6,200	3	2,200	4	3,200	7.5
제주	-	-	-	-	-	-	-
계	86	89,895	47	43,400	50	42,646	100.0

3) 제도개선사항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위해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대한 심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가능성이 있는 초기기업에 투자 노력을 기울였고, 지원기업 대상 기업공개(IPO) 교육을 연계 지원하여 기업가치를 키우는데 기여하였다.

사업전환지원자금

가. 사업전환지원

사업전환지원사업은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유자를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 9월 사업 개시한 이후 2012년까지 총 8,615억원을 집행하였다

2012년 사업전환지원사업은 179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였다. 동 승인기업에 대해 용자예산 대비 106.4%인 1,740억원을 지원결정하였으며, 예산 1,635억원을 집행하고, 용자액 1,635억원 중 40.9%인 669억원은 직접대출하였다.

2012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예산	신청액	지원결정액	대여업체수	대여액	직접대출액
163,515	239,426	173,980	297	163,515	66,906

사업전환 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업종추가가 사업전환계획 승인업체 179개중 93.3%인 167개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업종전환 6.7%(12개)의 순으로 나타나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기존의 생산기반 및 기술을 응용할 수 있고 리스크 부담도 비교적 덜한 업종추가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결정이나 대여실적 기준으로도 업종추가가 가장 비중이 높으며, 업종전환, 품목추가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는 품목추가 유형이 폐지되어, 품목추가 유형에 대한 신규승인은 없으나, 기승인업체는 사업전환 실시기간(승인후 3년)동안 용자연계가 가능하여, 2012년도에 약 31억원이 대출되었다.

2012년 유형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규승인		자금지원			
	업체수	비중	지원결정		대여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업종전환	12	6.7	12,156	7.0	8,123	5.0
업종추가	167	93.3	160,974	92.5	152,289	93.1
품목추가	-	-	850	0.5	3,103	1.9
계	179	100.0	173,980	100.0	163,515	100.0

또한 사업전환기업이 유희자산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를 새롭게 개설하였으며, M&A를 통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M&A Info-Market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으로 사업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나. 무역조정지원

1) 사업개요

무역조정지원사업은 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 또는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용자 및 상담(컨설팅)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무역조정지원센터는 2007년 4월 사업 개시 이후 2012년까지 15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32.4억원의 용자를 지원하였고, 21개 FTA피해기업을 대상으로 2.2억원의 경영·기술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였다.

2012년 7월 18일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에 따라 엄격했던 지원요건이 완화되었고, 기업이 스스로 작성하기 힘들었던 무역피해사실입증서 등 신청서류를 중진공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상담(컨설팅)만 희망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의 복잡한 지정절차 없이 중진공 단독으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연도별 무역조정 용자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당초 예산	20,000	30,000	30,000	30,000	20,000	27,500	157,500
집행액	-	200	500	850	200	1,485	3,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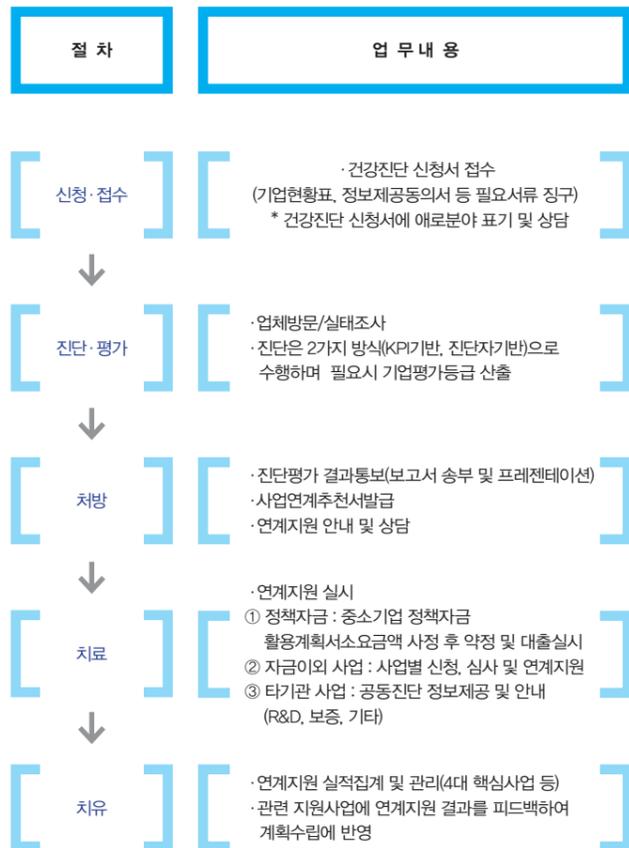
* 당초예산 중 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전환용자로 전용하여 전액 집행
* 2012년 대여업체수는 7건

건강진단 및 기술지원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

중소기업 건강진단은 업종전문가가 진단을 통해 문제점(기업에)을 분석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료를 위한 정책을 연계지원하여 기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건강진단 추진절차



2012년도에는 총 3,208개사에 진단을 실시하여 정책자금 융자 등 총 2,829건의 시책사업을 연계 지원하였고, 진단기반 정책자금 지원을 활성화하여 1,753개사에 총 11,549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건강진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청, 신보, 기보와 업무협약을 맺고 협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진공 핵심사업(정책자금, 융자, 컨설팅 등 기술지원, 연수, 마케팅 및 글로벌협력)은 물론 R&D(기술개발), 보증 등 11기관 34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연계지원성과를 확산시켰다.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중진공은 '12년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지속성장, 창업기업 과제)을 수행하였다.

중진공이 29년간 지도사업을 통해 축적한 컨설팅사업 수행능력을 기반으로 지원기업 선정에서부터 점검,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중진공 책임하에 수행하여 '12년에 688개 기업을 선정하여 59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12년부터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칸막이식 사업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건강진단을 도입, 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 및 치유를 위한 처방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원기업의 성과개선에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 인당생산성 : 93.8백만원 → 111.5백만원 (18.80% 증가)
- 생산납기준수율 : 86.61% → 94.01% (8.54% 증가)

- 공정불량률 : 5.75% → 3.27% (43.18% 감소)
- 제조원가율 : 78.12% → 74.62% (4.49% 감소)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은 낙후지역 기업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메뉴판 형식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기반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정부지원에서 소외 가능성이 높은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및 접경지역) 소재기업 지원에 특화되어 있다. 2011년도까지 중진공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진단팀이 기업 전체 수준 및 애로요인을 파악 후 특성에 적합한 사업지원계획을 기업과 공동으로 작성하여 기술개발, 컨설팅, 마케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메뉴판형식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성장촉진지역 37개 시·군에서 93개사를 추천 받아 선도기업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업종별 평가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거쳐 50개사에 20억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지역선도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103개사에 대한 기업진단을 수행하였다.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 사업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 사업」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관련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 생산성 향상 컨설팅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

조하는 중소기업이며 과제는 자유공모 기술개발 과제로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기술개발에 필요한 개발비용을 정부보조금으로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성공시, 기술료를 정부보조금의 20% 이내에서 납부한다. 특히, 기술개발 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다.

'12년도 정부보조금 규모 및 지원 내용

'12년 예산	·1,589백만원
지원기간	·2년 이내
지원한도	·자전거산업 분야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연 3억원 이내(과제당 총 5억원 이내)
지원비율	·총 개발사업비의 75% 이내(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신규과제 접수 결과, 자전거 분야 18개 과제, 해양레저장비 분야에 16개 과제가 신청, 총 34개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6개 과제(자전거 3개, 해양레저장비 3개)를 최종 선정, 신규 지원하였으며 '11년 선정 과제의 경우 연차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4개 과제(자전거 2개, 해양 2개)를 계속과제로 지원하였다.

지원과제에 대한 정량적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허 등록 및 출원건수' 및 '시제품출시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지표를 관리 하고 있으며 특허등록 2건, 특허출원 1건, 시제품 출시 5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녹색경영확산사업

국내외 녹색규제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녹색경영확산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우수Green-Biz 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녹색경영: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우수Green-Biz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그린비즈 컨설팅을 지원(194개, 1,840백만원)하여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 수준을 진단하고, 기업 규모별·특성별 경영전략 도출 및 개선과제 지원을 통해서 우수 Green-Biz 71개사를 배출하였다. ('11년 35개사 → '12년 71개사)

또한 우수 Green-Biz 선정 활성화를 위해 녹색경영 평가지표를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고, '제1회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포럼'을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러 중소기업 기술매칭사업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고비용 등으로 기술 도입선의 다변화를 위하여 원천기술과 기술 인프라가 풍부한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과 국내 중소기업간 기술매칭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하였다.

한·러 기술매칭 인프라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협력 저변을 확대하였다. 기술매칭 설명회 개최(1회)로 국내 수요 발굴을 통한 사업 활성화 노력을 기울였으며, 러시아 광학 기술컨설팅(5개사), TRIZ기법활용 애로기술해결 컨설팅(4개사) 등을 통해 참여기업의 비용절감 등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보였다. 특히 매출액 증가 및 특허출원(4건)의 가시적인 효과로 참여기업의 역량이 증대되었다. 또한, 포털사이트(korustech.sbc.or.kr)를 구축하여 러시아 우수기술과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등 온라인 사업지원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한·러간 기술연계를 통해 공동연구, 기술협력, 상업화 추진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하여 참여업체와 현지 협력기관간 기술이전 MOU 5건을 체결하였다.

연수 및 인력지원

연수사업

연수사업은 창업 CEO 양성 및 경영자 혁신역량을 기르고,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과 현장실무 적용능력을 배양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 공개집합, 맞춤, 원격, 기업현장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1982년 중소기업연수원 본원(안산) 개원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호남연수원(2001년, 광주), 대구·경북연수원(2003년, 경산), 부산·경남연수원(2004년, 창원) 등 3개의 지방연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4년 개원을 목표로 중소기업 글로벌리더십연수원(태백)을 건립하고 있는 등 지난 3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교육을 선도하여 2012년 현재 총 115만 여명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2012년 74,923명의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중앙연수원 50,495명, 지방연수원 24,428명의 실적을 각각 달성하였다. 취업연계과정 등 정부정책 연계연수와 문제해결형 현장맞춤연수를 확대하였고, 정책자금 지원과 연계한 '청년창업 아카데미'를 신규로 추진하였다.

2012년 연수실적 (단위: 명, %)

과 정	'11년	'12년		
		계획(A)	실적(B)	달성율(B/A)
○ 공개집합(향상)연수	20,502	13,850	18,683	134.9
- 최고경영자연수	2,258	2,430	3,779	155.5
- 기술연수	8,276	5,650	6,430	113.8
- 품질연수	4,896	2,950	3,847	130.4
- 경영연수	5,072	2,820	4,627	164.1
○ 맞춤연수	12,399	10,500	11,858	112.9

○ 원격(인터넷·우편연수)	16,844	10,500	16,925	161.2
○ 국제연수	335	300	400	133.3
○ 조직활성화(한마음)연수	5,838	4,400	4,392	99.8
○ 기업현장연수	16,564	13,700	17,511	127.8
○ 청년창업 양성연수	5,056	4,200	5,154	122.7
계	77,538	57,450	74,923	130.4

민간과 차별화된 공공연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 및 취업연계 연수를 중점 실시하였고, 시장소외영역인 소기업 연수비중을 확대하였으며(전체 연수대비 36.7%), 모바일 연수과정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새로운 기업교육 환경변화에 대처하였다.

연수원 내부직원이 연수과정에 참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Mystery shopper제도(연수과정 모니터링 시스템)"와 연수종료 후 고객의 목소리(VOC)를 상시 수집하여 "CS위원회"를 개최하고 연수과정에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는 "고객제안카드제도"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아울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밀착된 지역특화과정을 중점적으로 개발·운영하기 위해서 3개의 지방연수원을 활용,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연수과정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 CEO의 글로벌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개원을 목표로 "중소기업글로벌리더십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소외영역인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의 낮은 교육훈련율을 제고하기 위해 소기업 특화과정을 개설하여 소기업 연수 비중을 높였고,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소기업 CEO의 교육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실시지역을 확대

(9개 지역→10개 지역)하고 주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중앙 및 지방연수원의 교육담당자로 구성된 “HRD지원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목소리를 수집·공유·전파하고, 연수추진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연수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모든 공개집합연수를 대상으로 교육 전·후 동일 설문지를 통한 편차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지식획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학습성취도 조사”를 본격 실시하였으며, 교육 내용의 현장실무 적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현업적용도” 조사를 신규로 도입하여 과정보다 맞춤형 성과평가체계를 정립하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창업자(만39세 이하)를 선발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사관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창업교육과 코칭, 창업공간 및 1억원이 내 개발비 보조 등이 패키지로 지원되고(One-Stop 지원), 중간평가를 통해 불성실 또는 사업수행능력이 미달되는 입교생을 중간 퇴교시키며(중간퇴교시스템), 마케팅 및 사업화 융자금 등의 후속 연계지원 등 차별화된 운영을 통해 청년층 기술창업의 사업화기간 단축과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



2012년도 총 1,301명이 입교신청하여 3단계 심사를 통해 이 중 229명의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였으며, 2012년 3월에는 3개 지방연수원(광주·경산·창원)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개교함으로써 지방에도 창업분위기를 확산하였다.

특히, 1대1 창업코칭을 위해 기술 및 경영전문가로 구성된 24명의 전담교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전적 창업가 정신 함양과 전문지식 배양을 위하여 총 137개 교과목을 183회 개설하여 누적기준 3,639명이 창업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청년창업자에 대해서 매월 창업활동 보고와 2회에 걸친 중간평가를 통해 불성실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미달되는 16명을 중간 퇴교시켜 최종 213명이 졸업하였다.(졸업식 개최 : '12.2.28일, 대통령 참석)

제2기 청년창업자 입교 현황('12.12월말)
(단위: 명, 업체수)

신청	입교자 현황 ('13. 2월말 현재)			운영 특징
	선발(A)	퇴교(B)	졸업(A-B)	
1,301	229	16	213*	·사업 수행능력평가 (2회 중간평가) → 미달자 퇴교 조치

* 졸업 대상자 213명 졸업평가 시행('13.1.16~'1.17)

제2기 청년창업자 기술분류별 현황('12.12월말)
(명, %)

구분	전기 전자	기계 재료	정보 통신	지식 SW	공예 디자인	환경 에너지	화학 섬유	생명 식품	기타	합계
청년창업자	38	41	18	61	18	13	9	10	5	213
비중	17.8	19.3	8.5	28.6	8.5	6.1	4.2	4.7	2.3	100

이들 213명은 1년의 사업기간 중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기술 및 사업화지원을 통해 미국(피츠버그) 및 독일(뉘른베르크),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준대상 1개, 금상 15개, 은상 4개 등 총 36개의 상을 수상하여 국제적으로 기술혁신성을 인정받았으며,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584건을 출원 및 등록하고 141억원의 매출과 686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2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추진 실적
['12. 12월말 기준]

구분	1기 졸업자(기업)	2기 입교자(기업)	비고
·창업(유지)	212업체	204업체	·'12. 12월말 기준
·고용인원	757명	686명	·(1기) '12. 10월말 기준 ·(2기) '12. 12월말 기준
·매출액	470억원	141억원	·(1기) '12. 10월말 기준 ·(2기) '12. 12월말 기준
·지재권	793건	584건	·(1기) '12. 10월말 기준 ·(2기) '12. 12월말 기준
·국내·외 수상	72건	36건	·'12. 12월말 기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졸업 후 5년간 창업기업의 창업유지 및 성과 실태파악 등 성장이력을 추적·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어 창업기업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84억원의 투자유치(11업체) 및 121억원의 용자지원(94업체), 172건의 판로지원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졸업평가가 성공(우수) 판정 기업 중 별도심사를 통해 20개의 추가지원(1년) 대상자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창업성공률 제고에 노력하였다.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고급 기술인력을 국내에서 구하지 못하는 경우, 해외에서 해당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발굴하여 국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2년에는 중소기업이 일본, 미국, 인도, 독립국가연합 등

으로부터 원천기술, IT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216명(수도권 120명(55.6%), 비수도권 96명(44.4%))을 채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국가별로는 기초소재 부품 분야 기술력이 우수한 일본, IT 분야 우수 기술인력을 다수 보유한 인도, 기초과학 분야 기술력이 우수한 독립국가연합 출신 인력이 다수(51.4%)를 차지하였다.

2012년도 사업 성과분석 결과, 외국전문인력 도입으로 신제품·신기술 319건 개발, 기존제품·기술 업그레이드 127건, 기술애로해결 174건을 달성하였으며, 331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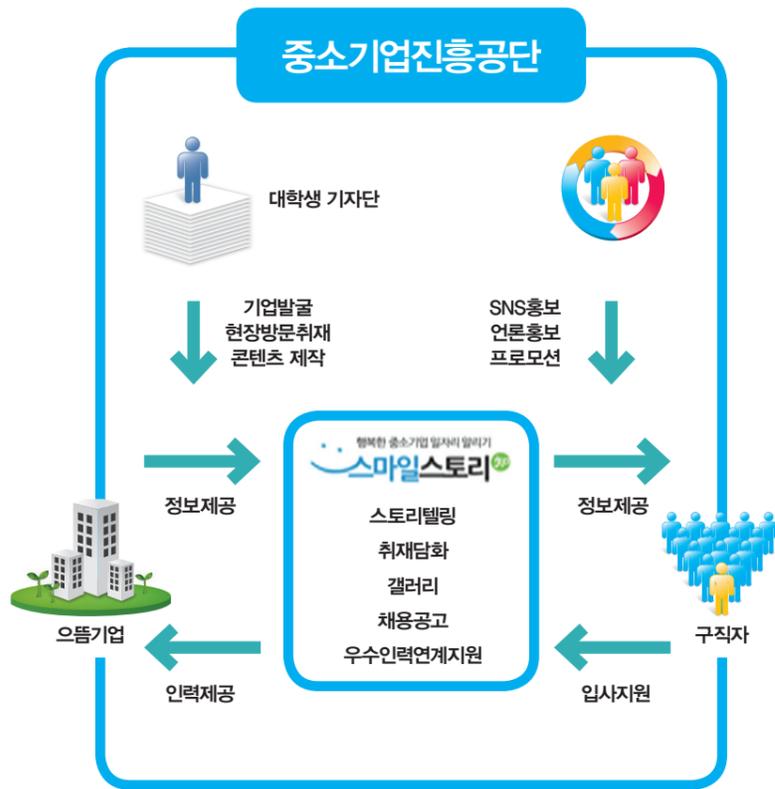
아울러 외국전문인력이 경우, 문화적 근무환경의 차이로 국내 적응기간 소요에 따른 근무능력 저하 및 조기귀국 등 도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전문인력 국내적응 연수프로그램”을 4회 실시하였다.

연수프로그램에서는 한국 및 중소기업문화를 안내하고, 기술유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한국문화 체험으로 외국전문인력을 조기적응시켜 중소기업 사업성과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연수를 수강한 외국전문인력에게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36점(5점 만점)으로 만족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정보제공 (스마일스토리지)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발굴·선정(으뜸기업)하여, DB구축(으뜸 e 대학생기자단 콘텐츠 제작) 및 정보제공(스마일스토리지 웹사이트)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력미스매칭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12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중진공 지원 우수 중소기업 중 503개사 발굴·선정하였으며 481명의 인력채용을 지원하였다.



웹사이트 스마일스토리지(www.smilestory.or.kr)는 선정된 으뜸기업에 대해 대학생기자단이 현장취재한 후 작성한 스토리텔링, 취재담화, 갤러리사진 등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과 연계(배너링크)하여 청년구직층에게 으뜸기업 정보를 널리 확산하고 있다.

마케팅 및 글로벌협력

국내수출지원사업

'09년부터 중진공은 해외마케팅 창구 단일화를 통해 지자체 등 사업주체로부터 예산을 수탁하여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선정·파견하고 있다. 2012년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국내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2,826업체이며, 참가기업에 대한 타 사업 연계지원 노력을 통하여 1,326개의 업체가 자금, 연수, 컨설팅, 건강진단 사업을 활용하여 수출실적을 제고하였다.

'12년도 국내수출지원사업 상담 및 수출계약 성과

사업명	실적		성과		계약체결 계약금액 (백만원)
	횟수	참가 기업수	상담 상담금액 (백만원)	상담 횟수	
해외전시회	65회	479개	1,025	18,679	16
무역사절단	145회	1,145개	2,943	15,370	42
수출상담회	8회	387개	708	894	10
계	218회	2,011개	4,676	34,943	68

국내수출지원사업 참가업체 연계지원 실적

('12. 12월말 현재)

사업유형	참가 기업수 (a)	연계지원(업체수)					연계율 (f/a,%)
		정책 자금(b)	연수 (c)	컨설팅 (d)	건강 진단(e)	계 (f=b+c+d+e)	
해외전시회	479	70	33	63	57	223	46.6
무역사절단	1,145	194	121	141	98	554	48.4
수출상담회	387	55	40	57	30	182	47.0
지역특화	815	155	69	109	34	367	45.0
계	2,826	474	263	370	219	1,326	46.9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해외현지에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설립초기의 위험을 경감해 주고 조기 정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스스로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기업이 임차하기 어려운 3-4평 규모의 독립된 사무공간을 저렴한 비용(임차료의 80% 정부지원)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정착 지원, 바이어 및 시장정보 제공, 컨설팅 및 상담, 현지 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 분	독자 진출	인큐베이터 이용
○ 소요비용	2억원 내외	약 7~8천만원
· 파견직원 인건비	최소 2명이상	1명
· 마케팅컨설팅 비용	30,000\$/년간	-
· 법률및회계자문 비용	별도 소요	-
· 판촉비, 기타 시장정보 수집 및 네트워크 구축	별도 소요	정보공유·노하우 전수로 초기 시행착오 비용 최소화
· 임대료 및 사무집기	16,000불 내외	월20만원 내외

* 1개 입주업체당 연평균 130백만원의 비용절감 효과

2012년 말 현재, 수출인큐베이터는 미국(뉴욕, LA, 워싱턴, 시카고), 독일(프랑크푸르트), 중국(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청두), 일본(도쿄), 브라질(상파울루), 베트남(호치민),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인도(뉴델리), 싱가포르, 멕시코(멕시코시티) 등 주요 해외교역 중심지 및 BRICs 국가에 설치·운영(11개국 17개소)중에 있다.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지역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	UAE	인도	싱가포르	멕시코	계		
	뉴욕	LA	워싱턴	시카고	프랑크푸르트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청두
입주규모	23	23	12	18	15	21	14	26	10	15	10	12	10	6	16	10	10	251

2012년 입주업체의 총 수출실적은 약 4억 4,233만달러이며,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의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결과, '현지진출 목표의 달성정도'의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어 사업성고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진출 목표의 달성정도(5점 만점)

구분	평균 (n=106)	표준편차
1. 수출확대에 기여	4.14	0.88
2. 전반적인 국제경쟁력 제고	4.19	0.77
3.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	4.23	0.78
4. 동 사업의 재 참여 의사	4.51	0.81
5. 투입 비용 대비 효과에 만족	4.26	0.87
6. 거래처 확대에 기여	4.20	0.86
7. 회사 이미지 제고에 기여	4.29	0.79
8. 직원의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	4.28	0.74

자료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년)

온라인수출지원

온라인수출지원(Gobizkorea)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 및 상품페이지(기업 블로그)를 제작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마케팅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96년부터 시작되었다.

1) 수출인프라 구축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 및 상품페이지 제작, 무료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Gobizkorea(www.gobizkorea.com)를 기반으로 3,688개의 홈페이지 및 19,686개 상품페이지(영문)와 136,203개 상품정보를 DB화하여 국내상품 소싱을 원하는 해외바이어와 국내기업간의 해외거래 네트워크망 구축을 지원하였다.

2012년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

(단위: 개,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누계
홈페이지	3,486	102	100	3,688
기업정보	28,080	2,971	1,580	32,631
상품정보	125,479	5,710	5,014	136,203

2)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온라인 무역트렌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 홍보마케팅도 추진 중이다. 구글, 야후 등 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외 유명포탈사이트에 검색엔진최적화(SEO) 방식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홈페이지를 상위노출시킴으로써 신규바이어를 발굴하는 검색엔진마케팅 지원사업은 150개사를 지원하였다.

2012년부터는 신흥시장 타겟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이어 맞춤형정보를 현지어로 제공하는 온라인수출관을 시범 운영해, 총 200개사, 797개 제품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수출관에 입점하여 현지화마케팅을 지원받았다.

또한 무역인력과 수출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인콰이어리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해외바이어의 인콰이어리 회신에 필요한 이메일 작성과 견적서, 거래제안서 번역 서

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해외바이어 발굴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2012년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실적

(단위: 개사, 건)

검색엔진마케팅		온라인수출관	
지원기업수	유효 인콰이어리 발굴	지원기업수	유효 인콰이어리 발굴
150	6,133	200	2,189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수출 5백만불~2천만불 미만의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3년간 마케팅/R&D/금융 집중지원을 통해 5천만불이상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한 프로그램 수행사를 활용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사업은 참여기업에 대한 마케팅역량진단을 통해 기업 내 핵심기술력 및 마케팅 역량에 대해 진단하고 기업의 맞춤형 성장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세부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총 11개의 온·오프라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2012년에는 해외타깃시장조사 40건,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8건, 글로벌 브랜드개발 14건 등 총 115개 업체를 대상으로 269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의 브랜드 경영 인식 개선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워크숍을 1회 실시하였다.

2012년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현황

NO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비중 및 한도	지원건 수	지원금 (백만원)
1	해외타깃 시장조사	맞춤형 해외시장 심층조사 지원	80%, 15백만원	40	281
2	해외진출 전략컨설팅	해외진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요 컨설팅 비용을 지원	80%, 20백만원	8	64
3	글로벌 브랜드개발	글로벌 브랜드 개발 컨설팅비를 지원	50%, 50백만원	14	553
4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전시회·박람회에 개별참가 지원	50%, 10백만원	73	620
5	검색엔진 마케팅	국가/대륙/언어별 기업 홈페이지를 해외 유명 검색엔진의 상위페이지에 노출시켜 바이어 발굴을 지원	50%, 5백만원	31	83
6	공중파 해외 광고	공중파 방송(Arirang TV)의 전문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마케팅 지원	50%, 4백만원	9	20
7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수출용 제품의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 지원	50%, 3백만원	13	28
8	제품디자인 개발	수출제품의 디자인 설계 및 도면작성, 목업 개발 등 지원	50%, 30백만원	13	265
9	온라인수출	2개 이상의 글로벌 B2B 사이트에 제품 등록 및 홍보 지원	50%, 3백만원	24	39
10	전자무역 서비스	무역업무를 전자문서에 의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가 전자무역 포털(www. uTradeHub.or.kr) 서비스를 제공	50%, 1.5백만원	1	1
11	상품홍보	국내외 유명 홍보전문지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제품의 Off-Line 홍보 서비스 제공	50%, 4백만원	43	112
계				269	2,066

글로벌바이어 국내소싱 지원사업

글로벌바이어 국내소싱 지원사업은 특정 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바이어에게 해당 상품을 제조·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국내 중소기업을 발굴 및 알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Gobizkorea 영문사이트를 통해 해외바이어의 신청을 접수 받아 진행한다.

동 사업은 2006년 중소기업수출경쟁력 강화대책(안)으로 시작되어, 2008~2009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수출실적 30백만불, 2011년 35백만불에 이어 2012년에는 42백만불 수출실적을 창출하였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담을 위해 방한하는 해외바이어에게 중소기업 동반방문, 통역, 무역상담, 추가 제품소싱 등을 후속 지원하는 방한바이어 지원서비스를 운영하였다. 방한하는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상담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현장미팅 총 122건에 대하여 거래조건, 견적, 벤더등록 등 구체적인 협상 진행을 지원하였다.

해외바이어알선 이후 수출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절차별 실무상담(오퍼발행, 협상, 수출계약 체결 등) 등 무역관련 제반의 업무에 대해서는 총 355건의 온·오프라인 상담지원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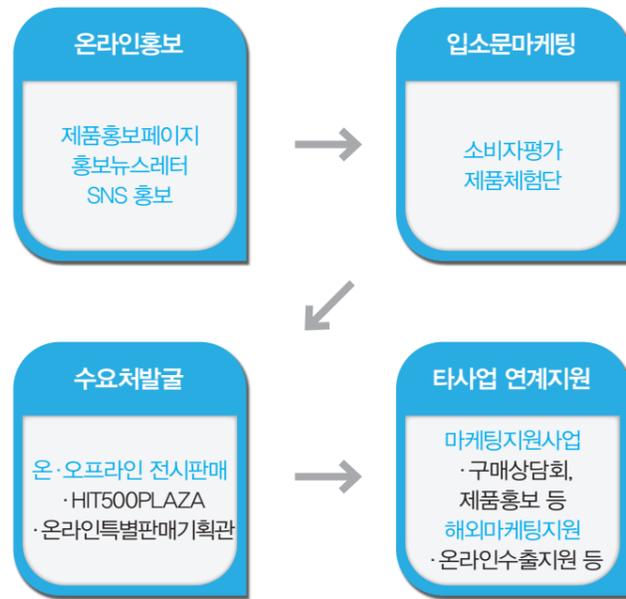
2012년 글로벌바이어 국내소싱 지원실적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바이어알선	719건	521건	1,218건	1,380건	1,506건
방한바이어 지원	-	-	29건	107건	122건
수출실적	2,345천불	11,413천불	30,203천불	35,501천불	42,042천불
비고	시범사업 운영		방한바이어 지원 실시		

중소기업거래지원(HIT500)

HIT500이란 자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시장진입 초보 중소기업 유망 제품을 발굴하여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마케팅과 판로 지원을 통해 제품의 시장 인지도 제고 및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다.

2010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2012년 510개 중기제품을 소비자 및 전문가 평가 방식을 통해 선정한 후, 웹사이트 내 제품 홍보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전시장 구성, 소비자 평가와 제품 체험을 통한 입소문마케팅, 판로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유통사 MD 등 현직 마케팅전문가 16인을 전문가평가단으로 구성하여 HIT500제품 선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전용 정책매장(명칭:HIT500 PLAZA) 입점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특히 HIT500 PLAZA와 온라인오픈마켓(G마켓) 내 HIT500제품 특별판매기획관 운영 등 판매 지원을 통해 연간 951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판로 지원 사업으로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향후 HIT500사업은 제품 선정에 있어서 전문가평가단 확대 운영을 통해 시장성 검증에 보다 강화하고, 정부 마케팅 지원 사업의 시발점으로서 중진공 운영 국내외 마케팅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원 확대 및 성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HIT500사업 지원실적

(단위: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HIT500(제품선정수)	670	603	510	1,783

스마트제품 발굴지원사업

스마트제품 발굴지원사업은 수입품, 고가제품, 대기업제품과 품질비교분석을 통해 착한 중소기업 제품(친환경적·착한 가격·고품질)을 발굴하고, 선정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시범 추진한 사업이다. 소비자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 관점에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을 추진,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 제품 판매촉진과 물가안정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2012년 4월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범테스트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비크림, 블랙박스 2개 품목군에서 7개의 스마트제품을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로지원의 일환으로 신문, 방송 집중보도(110회)를 실시하여 중기제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였다. 또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12년 8월 한국소비자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친소비자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졌다.

'12 스마트제품 발굴 시범테스트 현황

품목분야	비교대상 제품수			선정 우수제품수		
	중소기업	대기업	중기	중소기업	대기업	계
기능성비비크림	수입 2개	대기업 2개	중기 16개	3	-	3
차량용블랙박스	수입 2개	대기업 2개	중기 7개	4	2	6
계 (2개 품목)	수입 4개	대기업 4개	중기 23개	7	2	9

아울러, 중소기업 CEO 및 직원을 대상으로 친소비자경영 확산을 위한 시범 교육을 실시하여, 제품 생산 기획부터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착한제품 생산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친소비자경영 확산 교육은 2012년 249명을 대상으로 5회 실시하였다.

2012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2013년부터는 협력 소비자 단체를 추가하는 등 스마트 제품 발굴·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비교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스마트제품에 대해서는 후

속판로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FTA 활용지원사업

2012년에는 한·미 FTA 발효(3.15), 한·EU FTA 발효 1주년(7.1)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가 본격화되어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업무 애로사항 및 해외마케팅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중진공은 해외마케팅지원사업과 FTA활용지원사업의 연계지원을 통한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담부서(수출마케팅처)를 일원화 하였다.

2012년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FTA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FTA닥터(컨설팅), 국내외 FTA설명회, 한미FTA세미나 등을 실시하였다. 원산지 확인 및 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관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컨설턴트를 현장에 파견하여 애로를 해소하는 FTA닥터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관리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였다. 닥터컨설팅은 중소기업의 FTA활용수요를 감안하여 지원실적을 전년대비 40% 늘렸으며, 인증수출자·원산지검증 등의 분야를 신설하여 지원하였다. 특히 기 지원업체 중에서 20개사를 선별하여 FTA협정국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및 바이어발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소외지역과 공단밀집지역에서 지역별 FTA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 FTA원산지 실무 등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CEO 및 담당자의 FTA활용 의식을 고취하였다. 특히 한·미 FTA 활용 세미나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 한·미 FTA활용전략 및 필요성을 홍보하였고, 현지의 FTA활용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개선을 건의하는 등 FTA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FTA활용지원사업 주요 실적

구분	실적	주요 내용
FTA 닥터 (컨설팅)	598개 업체	FTA원산지확인·증명 및 원산지 관리방안 제시
한·미FTA 세미나	1회, 395명	원산지실무, 통관, 지적재산권, 중소기업 등 분야별 로 한·미 FTA에 대한 정보 제공 (미국실무자 초청을 통한 동시통역 강의 등)
국내 FTA 설명회	10회, 990명	정부의 FTA 지원정책
해외 FTA 설명회	2회, 212명	FTA 체결국 시장 진출전략 등 해외마케팅 전략 FTA 원산지 이해와 활용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 유수의 민간 컨설팅 회사나 마케팅 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민간네트워크는 수출과 해외투자 등을 위한 시장조사와 협력파트너의 발굴, 계약체결을 위한 법률자문, 현지법인 설립 등을 지원하며, 해외유통망을 확보하고 국제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연결시키고 프로젝트 소요비용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진출지역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는데 북미·유럽 등 지역은 기업 당 최대 2,000만원, 중국·동서남아 등 기타 지역은 기업 당 최대 1,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였다.

2012년에는 43개국에 132개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지정하였는데, 특히, 전략프로젝트 수행사(23개사)를 선정하여 현지 판매거점 지원 및 글로벌 전략품목 마케팅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시급한 해외진출 애로사항에 대한 단기 컨설팅(98개사) 및 현지진출 지원 인큐베이팅 역량을 보유한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정착 지원(4개사)도 실시하였다.

한·미, 한·EU FTA 발효 관련 효과 선점을 위해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글로벌바이어 초청 우수 중기제품 구매 상담회 개최하여, 미국·유럽소재 글로벌바이어 QVC, Bosal 등 35개사와 중소기업 273개사가 참가하였으며, 수출계약 가능액은 1,056만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해외진출 성공실패사례 공유 등 글로벌 마인드 제고 교육도 3회 실시하였으며, 약 294개사가 참가하였다.

2012년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은 총 412개사로 수출실적 577백만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2년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실적

구분	민간 네트워크수 (개사)	지원기업수 (개사)	수출실적 (백만불)	투자유치 (백만불)	현지법인설립 (개사)	기술협력 계약체결 (개사)
2011년	131	357	552	1.7	25	20
2012년	132	412	577	0.2	12	18

사업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 리서치기관((주)리서치랩)의 설문조사 결과, 동 사업을 통한 해외진출 도움정도는 92.6%, 컨설팅 만족도는 81.9%로 높게 나타나는 등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해외인턴사업

중소기업 해외인턴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수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하여 우수 대학생을 선발, 국내교육을 거쳐 해외진출 중소기업 및 재외동포기업에 해외인턴으로 파견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교과부와 중기청의 수탁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12년에는 목표인원 200명의 118.5%인 237명을 24개국 65개사로 파견하였다.

2012년 중소기업 해외인턴사업 추진실적

구분	목표	실적	달성률(%)
해외인턴 파견인원(명)	200	237	118.5
예산 집행실적(천원)	2,084	1,975	94.8

이들 중 2012년말 기준 173명 종료인원 중 16명이 해외현지 또는 국내에 취업에 성공하였다. 2013년에는 국내에 본사(지사)를 둔 기업의 수용을 늘려 취업 목표인원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2012년 취업실적

구분	정규직	계약직	계	취업률(%)
인원(명)	3	13	16	9.2

인턴과 수용기업 간 매칭률 제고를 위해 수용기업의 업종과 국가를 다양화하고 사전교육을 통해 해외인턴 전문성 강화로 파견 즉시 실근무가 가능하도록 국내교육을 진행하였다. 정부의 취업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따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하여 우대지원을 실시하였다.

2012년 취업취약계층 지원실적

구분	파견	저소득층		장기 미취업자	계	비율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이내)			
인원(명)	237	17	64	16	97	40.9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중진공은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해외 진출지역 내 협력기관 발굴 및 연계지원, 산업기술협력관 교환을 통한 합작투자 및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54개국 205개 협력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협력,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중국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코리아테스크, 동경, 뉴욕 등 4개국에 파견된 산업기술협력관을 통해 현지의 투자진출 상담, 방문 지원, 협력파트너 알선 및 행사주관 등 현지 진출을 밀착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코리아테스크를 해외 진출 수요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투자인허가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2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설치된 인도네시아 코리아테스크는 2012년에 현지 진출 희망기업의 법인설립, 파트너 알선 등 상담 122건, 방문기업 지원 13건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Export Club 활동을 통해 현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한·인니 중소기업간 녹색 협력을 위해 인큐베이팅, 컨설팅을 지원하는 GBC(Green Business Center)를 인도네시아에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거점 마련에 일조하였다.

말레이시아 코리아테스크는 2012년 상담지원 122건, 방문기업 지원 총 13회 등 당초 목표 실적을 초과 달성하며,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2012년 코리아테스크 사업 실적

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 상담지원(건)	200	122	120	122
2. 협력 알선 및 지원(건)	15	13	15	15
3. 한국 방문단 및 방문인사 지원(명)	10	13	10	13
4. 업종동향 보고(건)	12	12	12	10

2012년 미국, 독일, 두바이, 일본 KBC(Korea Business Center)에 각 1명씩 파견된 해외산업기술협력관을 활용하여 협력선 알선, 개별상담, 현지 네트워크 확장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우수지원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2012년 한 해 동안 캄보디아, 미얀마 등 신흥국가의 협력기관과 산업기술협력관 교환(14개국 26명), 사절단 및 전시회 참가지원(10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세계최대 기술거래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EEN을 활용하여, EU 가입국 중소기업과 우리 중소기업간 폭넓은 산업협력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국제회의 및 방한 지원 등 해외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하였다.

2012년 해외협력기반 조성

구분	실적	비고
산업기술협력관 교환	26회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스페인, 이태리 등
산업협력사절단 파견 및 방한 지원	10회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스페인 등
국제회의 지원	10회	APEC 그린이니셔티브 워크숍(브루나이), 아스타나포럼(카자흐), ISBC총회(뉴질랜드), EEN연례회의(키프로스) 등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는 '05년 제12차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공동선언을 통해 APEC 21개 회원국 중소기업 혁신 지원을 위하여 중진공 내 설치된 전담창구이다. '06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 설립, 운영되다가 '09년에 중진공으로 이관되었다.

2012년에는 APEC 중점주제인 창업 및 녹색성장(그린이니셔티브)을 테마로 한 사업추진으로 글로벌 정책이슈를 주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APEC 국제기금을 활용, 창업컨퍼런스와 그린이니셔티브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총 235천불의 기금을 획득하였다.

2012년은 “APEC 중소기업 혁신허브(HUB)” 기능을 목표로 협력분야(인적·정보·기술)별 세부사업 수행을 통하여 APEC 회원국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유와 역내 중소기업간 산업기술협력을 도모하였다. 컨퍼런스와 워크숍 개최, 웹사이트 운영 등으로 역내 우수정책 사례와 제도 전파를 촉진하였고, 혁신컨설팅을 통해 APEC 역내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기술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 및 강화하였다.

2012년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사업실적

협력분야	세부사업명	실적
네트워크 구축 (인적교류)	APEC 창업 컨퍼런스	6월 서울, 19개국 448명
	그린이니셔티브 워크숍 II	12월 브루나이, 18개국 67명
정책전파 (정보교류)	혁신브리핑(Innovation Briefing) 발간	2회
	웹사이트(www.apec-smec.org) 운영	상시
	그린이니셔티브 연구용역	1회
중소기업간 협력 (기술교류)	비즈니스 상담회	동경, 11개업체 21건 22,293만엔
	혁신컨설팅 실시	20업체/4개국

혁신센터 사업은 APEC 역내 중소기업 분야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國格)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가 외교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사업의 차별성이 있는 만큼 계량적 성과 창출 차원을 넘어 거시적으로 APEC 역내 중소기업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셈 중소기업 녹색혁신센터 운영

아셈 중소기업 녹색혁신센터(ASEIC)는『제8차 ASEM 정상회의('08.10)』VIP 참석 후속조치 이행으로 추진한 아셈 포럼('10.05) 및 ASEM SOM(고위관리회의, '10.7)에서 ASEIC 한국 설치를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아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근거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 2
 - 제8차 아셈정상회의 의장성명서('10.10월)
 - 국격제고 중점 관리과제 5-1-4('10.2월, 국무회의 통과)

ASEIC은 ASEM 회원국이 인준한 협의체로 회원국내 중소기업에게 신뢰성 있는 녹색 정보 제공을 통해 녹색 혁신을 촉진시키며 ASEM 역내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 기회 제공 및 글로벌 녹색 경영 확산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12년에는 신규사업으로 구축된 통합포털사이트(www.aseic.org)를 통하여 회원국내 녹색정책 및 환경규제 정보 등을 제공하였으며, ASEM 회원국 중소기업 대상(4개국, 32개사)으로 Eco-Innovation 컨설팅 실시, 녹색 적정기술센터 건립 및 제품생산을 통한 현지 사업화(캄보디아), 글로벌 포럼(2회) 개최 등을 통하여 아시아-유럽의 녹색 동반 성장을 위한 다자간 협력촉진을 위한 거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회원국 정부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012년 아셈 중소기업녹색혁신센터 추진실적

세부사업	주요실적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ASEM 회원국 32개국 환경규제 및 협약 4건, 환경보고서 51건, 전문가 정보, 녹색홍보관, 최신 녹색뉴스 78건 등 정보제공(www.aseic.org)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4개국 32개업체 지원 (인도네시아 8개, 말레이시아 8개, 태국 8개, 베트남 8개)
녹색적정기술 보급 및 확산	·적정기술센터 개소(10월), 5kw 태양광 설비, 태양열조리기 100개,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 60세트, 개량형 건조장 4기 보급 및 적정기술보급(캄보디아)
GBC설립 및 운영	·한·인니 정부간 매칭펀드 형식으로 운영 ·입주규모 총 13개실(한국 10개, 인니 3개)중 한국6개사, 인니1개사 입주
글로벌 포럼	·싱가폴('11.21~23), 중국('11.29) 등 2회 실시
ASEM 에코이노베이션 지수(AEI) 개발	·회원국 15개국을 대상으로 개도국과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국별 에코이노베이션 지수 개발 ·대상국을 에코이노베이션 4개영역 총 20개 지표*로 평가 * ①역량(국가의 잠재력 등 5개) ②활동(녹색기업수 등 6개) ③지원환경(정부녹색 R&D지출 등 4개) ④성과(녹색시장 규모 등 가치측정 5개)

중소기업 남북협력지원사업

남북협력지원사업은 남북경협 확대 및 북한진출 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목표로 대북진출 상담 및 사업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정책자금 융자, 건강진단 및 기술지원, 연수, 정보 제공 등 기업의 대북사업 추진단계별 요구에 대응하여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2년은 정부의 2010년 5.24 남북교역 중단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진출기업의 사업추진이 여전히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황으로 남북협력지원사업 추진 여건 또한 위축되었다. 이에 중진공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투자환경 개선방안」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 10개사를 선정해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조업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현지에서 21명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법인장 및 관리자 경영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교육기회가 전무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인장과 관리자에게 사례 중심의 실전형 교육을 제공하여 리더십 함양에 기여하였다.

7월과 11월 총2회, 폐쇄적인 개성공단의 사정을 고려하여 현지 법인장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여수 엑스포(110명, 7월)와 파주 지지향(80명, 11월)에서 상호교류, 애로사항 청취 등을 목적으로 한 집중워크숍을 개최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12년 자금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까지		2012년		누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순업체수	금액	
북한내륙지역	24	10,870	-	-	24	10,870	
협동화	24	10,385	-	-	24	10,385	
개성공단	개별	20	18,812	1	300	20	19,112
	소계	44	29,197	1	300	44	29,497
합계	68	40,067	1	300	68	40,367	

정보제공

간행물발간사업

중진공은 정보 수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설립 첫 해인 1979년부터 지금까지 34년간 매월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중소기업 경영·기술 전문지 월간 '기업나라'를 발간하고 있다.

2012년에는 중소기업에 더욱 유익한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중소기업 CEO에게 필요한 세무·법률지식을 소개하는 'CEO의 다이어리', 중소기업 경영 관련 IT정보를 담은 '똑똑! 스마트 라이프',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가이드인 '글로벌 가이드' 등 새로운 코너들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또한 2012년 연중기획으로 청년 창업인들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뿌리기업들, 글로벌 시장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수출기업 등 역동적으로 뛰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현장을 찾아 소개하는 '중소기업 FLYING' 섹션을 통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꿈과 도전, 열정을 조명하였다.

이밖에 상반기에 중기지원시책의 인지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들을 모아 소개하는 '2012 올해의 중소기업지원제도' 단행본을 부록으로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유용한 M&A 핸드북'과 '2012-2013 중소기업과 CEO를 위한 절세요령' 단행본을 발간하여,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2년 발간자료 목록

구분	자료명	발행시기	발행부수
정기간행물	· 월간 '기업나라'	매월1일	9,500부
단행본	· '2012 올해의 중소기업지원제도'	'12. 3	15,000부
	· '중소·벤처기업에게 유용한 M&A 핸드북'	'12.11	10,000부
	· '2012-2013 중소기업과 CEO를 위한 절세요령'	'12.11	10,000부

정책중개

중진공은 2011년부터 중소기업의 애로를 발굴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정책중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중진공은 기관의 강점인 현장성을 살려, 31개 지역본부에서 발굴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가 상시로 수집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매월 수집된 애로사항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매월 중소기업청 등 정부에 정책개선과제로 전달하며 "정부정책과 중소기업 현장의 중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1,613건의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여, 85건을 정부에 개선 건의 하였고 이 중 인증요건 간소화, 지원기업 대상 확대 등 총 17건이 시책에 개선사항으로 반영되었다.

2013년에도 31개 현장 접점부서와 함께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인 3불 사례(시장 불균형, 거래의 불공정, 제도 및 관행의 불합리)를 적극 발굴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해소에 기여하고, 또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 정책반영 내역 〉

연번	제목	주요내용
1	창업선도대학 지정시 지역 균형발전 고려	· '11년 창업선도대학에 제주도 소재 대학 전무 → 재정자립도 등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배정
2	해외규격인증 변경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인증규격 추가예정 → 유럽 CE('12.6월), 미국 FDA('13.7월) →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규격인증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등 선제적 대응
3	산업단지 조성시 편의 및 문화시설 함께 구축	· 공단지역에 근로자 생활과 밀접한 시설 매우 부족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 → 산업단지 조성 및 리모델링시 근로자 유입을 감안하여, 정주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주거, 교육·문화, 생활편의시설 등을 함께 확충
4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요건 완화	· 비전문취업(E-9)비자로 취업하여 체류기간 만료 후 장기체류하고자 할 경우 고급인력 수준의 기능 및 급여 자격 요구 → 기술·기능자격 취득 대신 국가공인 기관의 교육 및 시험으로 대체 등 취득요건 완화
5	동절기 준공검사시 조경시기 탄력적용	·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17조는 식수 등 조경에 부적합한 시기에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나 일부 지자체가 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준공검사 지연 → 지자체에 동 규정에 대한 홍보 강화
6	대기업 식자재 유통업 진출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	· 식품 제조 및 유통 대기업 계열사가 지방 식자재 유통 분야에 진출 → 현황 파악 후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
7	투융자복합금융 벤처기업 대상에 포함	· 투융자복합금융지원기업은 벤처기업 요건 중 '기술평가대출기업'에 미 해당 → 투융자복합금융 지원기업을 벤처확인 대상에 포함
8	중기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시행세칙 개정	· 중소기업 개발 제품의 성능인증 우선구매지원이 3년 인데 비해 성능인증 후 4년 정도부터 본격적인 제품매출 효과 발생 → 인증유효기간 심사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최초 인증제품 사양 그대로 인증 연장
9	재창업기업의 정부 사업 신청제한 예외 적용	· 재창업기업은 정부 지원사업의 신청제한 대상이 되어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발생 → 재창업기업은 정부 지원사업의 신청제한(금융기관 불량거래처 등)을 예외적으로 적용
10	제조업의 1인 창조기업 인정 범위 확대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중분류 24개 중 11개에 국한됨 → 1인 창조기업 적용 제조업 확대
11	수출전용 전기용품 인증면제 요건 현실화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수출전용 전기용품의 경우 시도지사 허가시 안전인증의무가 면제되나 법 시행후 한 번도 적용한 사례가 없어 기업 불편 초래 → 별도의 확인 없이 해외수출 가능(법개정예정)
12	접합유리 KS인증 심사기준 개정	· 접합 유리 KS인증 심사기준은 중간재료를 PVB 필름으로 국한 →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액상레진 등 다양한 재료를 중간 접합재료로 인정
13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 지방이전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시 7년간 사업영위, 업종전환 제한, 저당권과 가등기 설정 등으로 사업전환, 담보활용 등에 제한 → 3년이상 정상 사업의 경우 담보제공 부담완화하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시 지자체의 업종전환 승인으로 간주
14	중소주류제조업체 직영매장 시설기준 완화	· 탁주·약주를 제외한 주류 직영매장 시설기준은 여전히 대지 500㎡, 창고 300㎡ 이상의 시설(주세법 시행령 제 17조)을 갖춰야 하여 중소 주류(맥주, 희석식 소주)제조업체의 판로확보가 어려움 → 주류제조업에 대한 직영매장 시설기준 완화

15	상공회의소 가입의무 제도 개선	·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매출액이 일정이상인 기업은 당연회원으로 의무가입 및 회비납부 → 대상완화, 장기적으로 자율가입으로 전환
16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시 지역균형발전 고려	· R&D사업 선정시 수도권 50% 초과 → 재정자립도 등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배정
17	기술인력 유입 촉진 및 국내외 기술칭해 대응	· 중소기업이 전문기술인력 이직, 특허·기술침해 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 → 중소기업 연구인력과 숙련기술자 지원강화국내외 기술칭해 대응을 위한 지원확대



02
○

고객만족도
제고 및
경영효율성 강화

- 현장 중심의 서비스 향상
- 조직 경영효율성 강화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현장중심 고객만족 활동으로 고객감동 실현

2012년에는 CS체질 개선을 위해 현장 활동을 통한 고객만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현장중심 고객만족 활동 지원을 위하여 광역별 CS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고객만족과 관련한 현장완결형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였다. 광역본부 단위로 고객만족 개선활동과 분기별 점검활동을 진행하고, 고객만족 지표 점검과 고객만족 활동 강화를 추진하였다.

고객의 소리(VOC)를 경영 자산화하기 위해 VOC 기반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VOC분석 위원회를 통해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서 청취한 현장 애로사항(현장의 소리 365)은 정책 중개로 연결하여 중소기업에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CS센터를 통한 고객만족도를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고객만족 활동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였다.

고객접점부서의 고객만족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중 부서별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성과평가와 연계, 포상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고객만족 활동을 진행하였다.

전 직원의 자발적 CS활동 참여를 고양하기 위해 고객칭찬 등을 CS마일리지로 부여하는 보상체계를 운영하였다. 이렇게 축적한 CS마일리지는 대다수 직원의 참여를 거쳐 본사 이전 예정지(진주) 취약계층에 기부하고 나눔의 분위기를 확산하였다.

직원 고객만족 활동 강화를 위해 수준별 맞춤교육 형태로 고객만족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취약 부서와 직원에 대한 맞춤형 클리닉을 통해 고객만족 활동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VOC4U> 등의 정기 소식지를 발간하여 조직 내부의 우수가치를 공유하는 활동을 병행하였다.

이와 같은 현장 중심 고객만족 추진 노력으로, 2012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CSI)와 용자지원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등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12년 CS경영 성과

구 분	11년	12년
· CSI (외부)	92.8	94.0
· 용자지원 고객만족도	94.5	96.4
· 미스터리쇼핑	90.4	94.6

윤리경영을 통한 고객신뢰 강화

2012년 윤리경영의 목표를 '투명·공정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SBC'로 정하고 현장 윤리경영 확산을 통한 고객신뢰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윤리강령 제정을 통해 윤리경영 규범을 완비하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범위에 사회적 책임 이행과 함께 이해관계자와 윤리적 협력 추구를 명시하여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윤리경영실천지수를 강화하고자 자체적으로 윤리경영 지수를 조사하여 지역본·지부별 윤리경영 성과를 고객 대상으로 측정하고, 이를 부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객접점부서의 윤리경영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중 부서별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성과를 포상함으로써 윤리경영이 현장에 안착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정책자금 고객을 중심으로 윤리경영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외부 이해관계자와 윤리경영 협력을 추진했다. 협력고객(중진공의 정책서비스 일부를 협력하여 제공하는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윤리실천서약에 동참시킴으로써 협력고객 역시 동일한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계기로 삼았으며, 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CSR세미나를 개최하고, KOICA·UNGC와 공공민간파트너십 포럼을 주관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지원하였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초도 발간하여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실적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였으며, 직원별 CS·윤리경영 참여에 따른 CS·윤리 마일리지를 현금화하여 본사 이전 지역인 경남 진주시 소외계층 후원에 기부하여, 지역사회 실천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내부 윤리의식을 확산하는 '1석 3조의 기회'로 삼았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CS·윤리 마일리지 기부 윤리경영 현장사례집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통한 사회적 책임 완성

2012년 사회공헌의 목표를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사회적책임경영 내재화로 정하고 사회공헌 활동 관련 기반 마련과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체계적으로 사회공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고객만족 업무를 담당하던 고객만족실에 사회공헌 총괄 기능을 추가하여 지속경영실로 확대·개편하였다.

전략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부서와 지역의 특성,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과제(정보관리실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PC를 기증, 기업금융처는 창업동아리 멘토링을 실시 등)를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기관장이 직접

복지시설을 위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이전 대상지역에 대해 봉사활동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관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재능기부 단체인 「프로보노 재능기부단」을 결성하여 대학,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및 취업역량 강화”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희망가를 제작하여 유튜브에서 공유하는 등 중진공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였다.

자연재해, 인적재난 등 긴급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기술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복구지원단을 파견하여 복구자금을 298개 업체에 383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네트워크(세스넷)과 함께 경영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중진공의 핵심역량인 기업진단과 맞춤형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멘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16개 업체에게 진단을 지원하고 23개 업체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였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매주 마지막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여 전통시장에서의 부서 회식을 권장하고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토록 하였다. 또한, 진주중앙시장 등 12개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전통시장상품권을 144백만원 구매하는 등 노력하였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조직 경영효율성 강화

조직의 선진적 운영

진단기반 정책금융지원체계로의 개편, 직접대출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37명)하였으며, 직급별로 증원인력을 고르게 배정하여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였다(8.27).

또한 진단기반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조직운영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및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12.6).

추진 방향	조직개편 내용
① 진단기반 정책금융기능 강화	·(현장) 업종전문조직의 진단기반 직접대출 및 사후관리 업무 집중도 제고를 위해 지부 경상사업을 지역본부로 이관 ·(본부) 진단기획 및 시스템고도화, 정책자금 성과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진단사업처를 기업진단처로 개편하고, 기업금융처의 통계관리 및 성과분석 업무 강화
② 기관전략-사업기획-현장집행 역할 명확화 및 실행력 강화	·본부 임원을 기획관리, 진단금융, 경상사업 기능으로 재분류 - 기획관리본부장, 금융본부장, 성장연수본부장 ·광역임원은 핵심과제 및 현장관리에 집중 - 연수원장 겸 수도권 본부장 ⇒ (개편)수도권본부장
③ 대내외 소통강화 및 기관이미지 제고	·지속가능경영 기획 및 내재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기관이미지 관리기능을 보완 - 지속경영실 신설 - 홍보실에 기관이미지 기획 및 관리 총괄기능 부여

증원된 인력을 지역본지·부, 연수원 등 현장에 우선배치(25명)하여 현장 조직을 보강하고, 신규사업 추진 등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본부에 배치(12명)하였다.

아울러 '금융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며, 중진공의 정책금융업무 수행에 대한 정부(예산당국)의 공식적인 인정을 이끌어 내어 기관의 위상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안정적인 채권발행 및 채권발행 이자율 절감 효과로 향후 중진기금의 재무건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현장에 강한 직무전문가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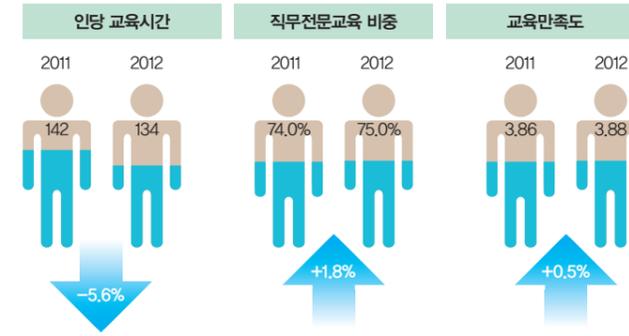
2012년은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인 「중소기업 현장에 강한 직무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직무전문가로서 필요한 3대 역량(업종별 기술역량, 심사/평가역량, 문제해결 역량)을 지정하고 해당 역량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업종별 기술교육의 경우, 심화 기술교육 과정을 신규 개설하여 3단계(산업동향분석→기술이해기초→기술이해심화)의 체계를 갖추었고, 직접대출 비중 강화에 대비, 심사 및 평가 관련 교육과정을 증설하여 교육 인원이 전년대비 71.2% 증가하였다. 특히, 현장전문가로서 문제해결 역량을 갖추기 위해 건강진단입문(이러닝) 교육을 전직원 필수과정으로 진행하는 등 건강진단 관련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교육 실적				직무교육 분포(인원기준)			
(단위 : 시간,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	리더십	행정	건강진단	사업
교육시간	107,050	102,216	△4.7%	5.2%	7.6%	48.5%	17.6%
·공동	27,822	25,292	△10%				
·직무	79,228	76,924	△3.0%				
·전문							21.1%
교육예산	998	886	△112				

또한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술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사례 182건을 담은 동영상 90개를 제작하여 직원들의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활용하였고, 창업 지도사, M&A컨설팅 전문가 자격증 취득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직원의 직무전문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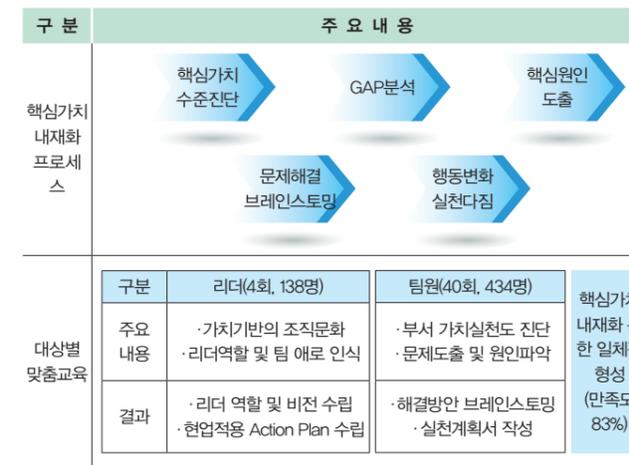
교육실적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 교육시간 및 인당 교육시간은 감소하였으나, 직무교육 비중은 전년대비 1% 가량 증가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소폭 증가했다.



소통경영 실천을 위해 기관장과 간부직원간 공감향상을 위한 'SBC 소통포럼'을 매월 1회, 임원 및 부서장/팀장을 대상으로 신규 운영하여 총 9회(737명) 진행하였으며, '10~11년 진행된 직급별 리더십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3급 전 직원에 대한 리더십 교육을 마무리 지었다.

2012년도에는 핵심가치(WITH) 내재화를 위한 2단계 교육을 실시, 리더 138명, 팀원 434명에 대하여 핵심가치 내재화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핵심가치 실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조직 핵심가치 공유를 넘어 핵심가치 실천 및 조직일체감 형성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하였다.

핵심가치 2단계(내재화) 교육



성과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보상 강화

조직 성과창출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핵심성과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였다. 전략목표와 성과관리간 연계성을 강화(전략·KPI 연계율 100%)하여 전사 전략목표의 실행력을 제고하였으며, 평가지표간의 화학적 결합을 통하여 평가지표수를 평균 26개에서 13.4개로 축소하고 최종성과 창출 강화를 위하여 결과지표를 확대하였다.

핵심성과 중심의 지표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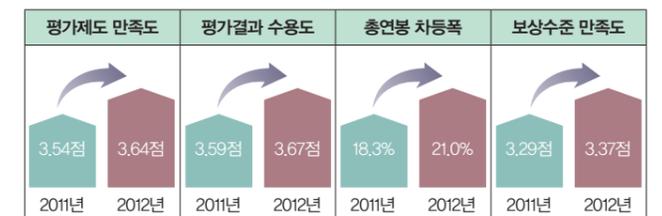
구분	11년	12년	증감
전략·KPI 연계율	100.0%	100.0%	-
평가지표수(평균)	26.0개	13.4개	△48.5%
결과지표 비중	12.7%	22.1%	74.0%↑

성과평가 결과에 기반한 차등보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인 및 조직평가 결과에 따른 내부평가급 신설, 기관경영평가 성과급 차등확대, 직무급 등급을 6등급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고성과자 발탁승진(36명), 성과우수자에 대한 부서장 보직 우선부여(5명), 성과부진 부서장 보직미부여(1명) 등 성과기반의 인사제도를 확대하였다.

성과중심의 차등보상 확대

구분	11년	12년	증감
총연봉 차등폭	18.3%	21.0%	14.8%↑
성과연봉 차등폭	2.2배	2.4배	9.1%↑
내부평가급	-	신설	-
직무급	3등급	6등급	3등급↑

이러한 핵심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운영 및 성과주의 보상 시스템 운영으로 부서평가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결과 수용도가 상승하였으며, 총연봉 차등폭 및 보상수준 만족도 등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만족도가 상승하였다.





03



2013년
사업추진
방향

2013년 사업추진방향

2013년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 등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대내외 경제상황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재정 조기집행,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며, 서민생활 안정,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공생발전 기조를 가속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 성장 동력을 촉진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2013년에 정책자금 및 진단기반 용자를 확대하여 진단기반 정책자금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정책목적성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창업초기·수출초보기업의 판로개척 기회를 지속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사관학교 통한 청년CEO양성 확대,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컨설팅 기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으로서 '중소기업 진흥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1) 정책자금 용자

2013년 정책자금 용자규모는 전년보다 6.3% 증가한 3조 8,500억원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나,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기술개발기업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유지, 경영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직접대출 규모를 12년 55%에서 13년 70%까지 확대하고, 신용대출 규모도 1.2조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 소공인특화자금은 전액 직접대출로 추진하여 자금조달 애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단기반 자금공급을 1.2조원으로 확대하고, 전국 13개 지역본부

에 설치 운영 중인 청년창업센터를 3개 지역에 추가 설치하여 기업진단과 연계한 멘토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정부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기술개발(R&D) 연계형자금의 시범운영,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동산 담보 대출도 추진할 예정이다.

2) 건강진단 및 기술지원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진단 방식을 사전진단과 사후진단으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진단은 정책자금의 투자효과 및 목적성 분석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후진단은 부실화 가능성 사후점검 및 단계개선과제 추진을 통해 정책자금 성과 향상 및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54억원 규모의 기업진단 연계형 컨설팅 실시하여 약 360개 업체에 불량률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국내 해결이 어려운 첨단·핵심분야에 대해서는 유럽, 일본 등 선진국 해외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외국전문인력도입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마케팅 전문인력 도입기준을 완화하여 외국전문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3) 마케팅·국제협력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은 국내외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단계별 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우선, 창업·수출초보기업에 대한 단순 수출지원에서 입체적 밀착지원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현행 수출인큐베이터를 중소기업글로벌센터로 전환하고, 글로벌 창업, 기술 및 해외전문가 매칭, 수출 연계형 자금 등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수출지원은 수출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체계적 지원으로 수출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수출관을 통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검색엔진마케팅, 바이어 알선 등으로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며, 방한바이어 지원, 무역상담 등의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일련의 사업을 연계지원할 것이다.

글로벌 협력사업은 '12년 시범추진한 산업기술협력관의 국가별 중점 전략과제를 현지 수요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성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4) 연수 및 인력양성

연수사업은 민간 교육시장 소외 영역인 소기업 연수, CEO 경영 역량강화 연수 등을 확대하여 공공연수로서의 정책목적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현장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뿌리기술 연수과정과 전문가 방문 문제해결형 연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정책의 성과향상을 위해 청년층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연수과정 운영,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을 위한 취업연계연수 등 정책연계 연수를 확대 실시할 것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창업자 선발 규모를 전년대비 약 30% 확대하여 30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지방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선발 인원을 '12년 51명에서 '13년 1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방에도 입소형 방식을 도입(60%)하여 지역별로 특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04
○
부록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 2012년 발간간행물
 - 2012년 주요행사
 - 조직도
 - 운영위원 및 임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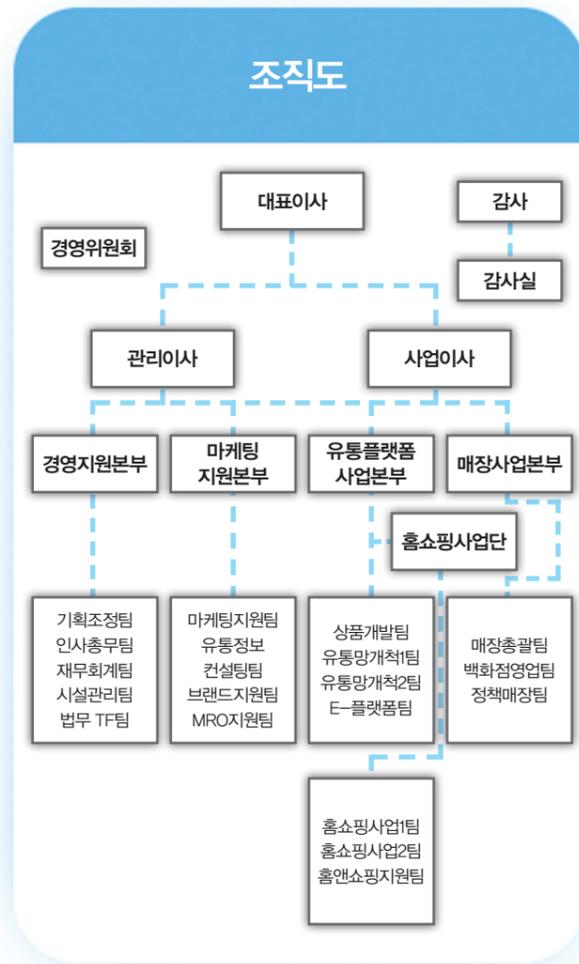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에 의거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1일 설립되었다.

중소기업 제품의 전문적인 판로지원을 위하여 1999년 12월 3일목동 판매장(행복한세상백화점)을 개점하였으며, 2012년 9월에는 '행복한백화점'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4층 전체 매장(1,100평)을 중소기업전용판매장「HIT500PLAZA」으로 확대 오픈하여 창업벤처상품, 지역특화상품, HIT500제품, 청년창업사관학교 제품 초기 테스트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채널 확대를 위해 2001년부터 TV홈쇼핑사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2년 중소기업전용홈쇼핑(홈&쇼핑) 개국(15% 출자)과 더불어 중기전용홈쇼핑에도 우수 중기제품을 선정하여 방송판매를 지원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중소기업제품의 발굴·판매지원의 공적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인천공항면세점, 인천항 여객터미널 등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정책매장(HIT500PLAZA)을 설치·운영중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소모성 자재 납품업지원을 위한 MRO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 중소기업 구매상담회사업, 공동상표지원사업, 중소기업 공동A/S센터사업, 여성기업(신진디자이너)지원사업 등 정부의 다양한 마케팅촉진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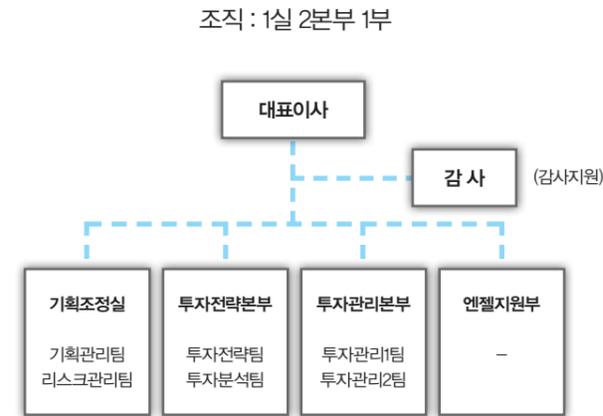


한국벤처투자(주)

한국벤처투자(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촉진법」에 의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결성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관리·운영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舊 다산벤처)으로서 2005년 6월 29일 개소하였다.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은 2012년말 현재 1조 4,791억원이 조성되어, 1조 8,021억원(251개 조합)을 출자약정하여, 7조 370억원의 자조합(한국벤처투자 조합 등)을 결성하였다.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주)는 국내외 벤처투자 정보 공유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국내외의 LP(Limited Partner) 및 GP(General Partner)를 대상으로 International Value Workshop을 개최하였으며, 국내투자기관 대상 세미나(4회)를 개최하였다. 더불어 벤처투자 Summit(1회) 개최와 VC/PE Monthly(벤처캐피탈 전문 월간지)를 발간하여 관련 벤처캐피탈산업을 지원하였다.



(주)SBC인증원

(주)SBC인증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와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 품질경영체제 인증관련 사업추진 위촉에 따라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5년 7월 28일 중진공 ISO 9000인증기관으로 설립되어 1996년 1월 9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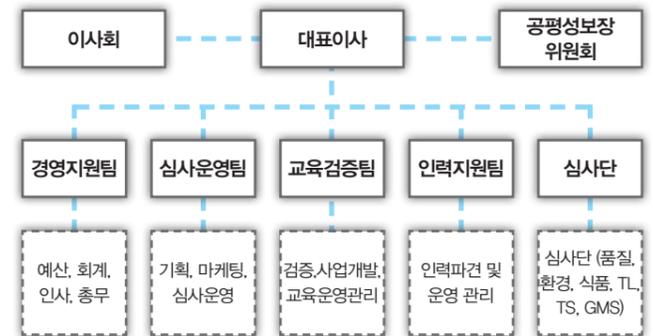
인증원은 ISO 9001(품질경영체제), ISO 14001(환경경영체제), TL 9000(정보통신 분야의 품질경영체제), ISO 22000(식

품 분야의 품질경영체제), KS I 7001(녹색경영체제)의 인증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인증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실정에 맞게 자체 개발한 소기업형 심사기법(3S시스템 심사모델)을 보급하고, 품질비용관리 및 개선추진가이드 개발을 통하여 고객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인증보급 확대를 위하여 TS 16949(자동차분야)와 UL, CE등 제품인증서비스를 국내·외 유수의 기관들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713건의 인증서를 발급하였다.

사업실적

구분	인증건수	매출액	당기순이익
2008	566	1,922	34
2009	627	1,925	40
2010	612	1,961	76
2011	722	2,049	56
2012	767	4,042	103



2012년 발간 간행물

◎ 쿵!썩!으로 부르는 노래	'12. 1
◎ 2012 올해의 중소기업지원제도	'12. 3
◎ 전략업종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태양광·LED편)	'12. 3
◎ 2011년 연차보고서	'12. 4
◎ 이기는 경영 이기는 공장(10/11 기술컨설팅 우수사례집)	'12. 8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1·2012	'12. 8
◎ 정책자금 성공사례집(중소기업 성공파트너)	'12. 9
◎ 청년전용창업자금 수기집(젊음으로 한 계단, 도전으로 두 계단)	'12. 9
◎ 기업성장에 날개를 달다	'12. 9
◎ 청년, 창업에 미치다	'12. 10
◎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Clean SBC	'12. 10
◎ 새로운 도약 그리고 도전 이야기 - 2012 중소기업 건강진단 우수사례집(e-book)	'12. 11
◎ 2012년 해외과건협력관이 발굴한 우수지원사례 및 현지국 제도조사	'12. 11
◎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유용한 M&A 정보	'12. 11
◎ 2012-2013 중소기업과 CEO를 위한 절세요령	'12. 11
◎ 2012 M&A 핸드북	'12. 11
◎ 중소기업연수원 30년사	'12. 11
◎ 중소기업 현장 애로 및 규제개선 과제	'12. 12
◎ 녹색경영이 살 길이다 - 중소기업 그린비즈 컨설팅 우수사례집	'12. 12
◎ 2012 중소기업 정책, 그 새로운 시각 - 제 20회 중소기업 정책연구 및 체험리포트 공모전 수상작모음집	'12. 12
◎ 위대한 변화, 통쾌한 성공	'12. 12
◎ The Best 청년전용창업자금 디렉토리	'12. 12
◎ 수출마케팅 고비즈코리아에게 길을 묻다.	'1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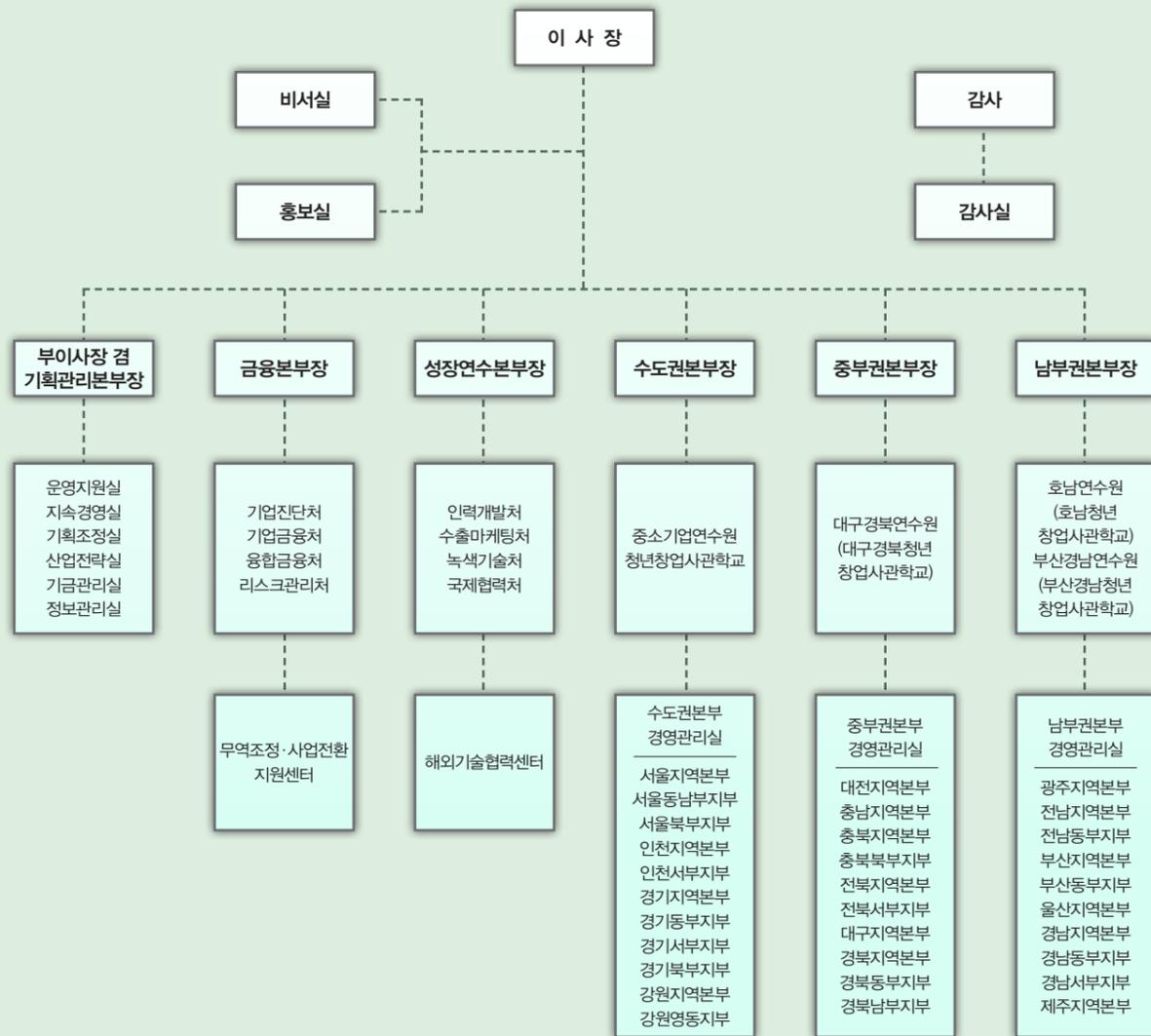
2012년 주요행사

1월	2일	2012년 시무식
	18일	박철규 이사장 취임식
	27일	공공기관선진화워크숍창립기념행사
	30일	창립기념행사
2월	2일	금융지원위원회
	14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협약식
	24일	소통과 공감 워크숍 및 핵심과제 협약 체결
3월	21일	2012년 해외민간네트워크 출범대회 및 매칭상담회
	27일	PCSI 향상 워크숍
4월	6일	한국중소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
	27일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졸업)기업 투자유치상담회
5월	2일	녹색성장워크숍
	16일	전국 중소기업CEO 한마음대회
	17일	전국 중소기업인 대회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50주년 리셉션
6월	12일	APEC 창업컨퍼런스
	14일	비상경제대책회의
	22일	광주 경영자 총연합회 조찬강연
	27일	'12년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인천공항 정책매장 오픈
7월	3일	협동조합 주간행사
	25일	제19대 임시국회 업무보고
8월	1일	스마일스토리지 오픈
	10일	공감보드(청년이사회) 개최
	20일	초단기 수출축진을 위한 유관기관장 회의
	22일	한국소비자원 MOU 체결
9월	4일	HIT500 플라자 오픈식,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정식
	5일	201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26일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10월	9일	2012년 국정감사 수감
	12일	진주사옥 현장방문
	23일	중소기업 체험 레포트 및 논문 공모전 시상식
11월	4일	창업사관학교 우수기업 실리곤벨리 견학
	21일	한국 우수 프랜차이즈 MOU 체결
	23일	동아시아 라운드 테이블 참석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31일	2012년 종무식

조직도

□ 8처, 12실, 31 지역본·지부, 4연수원, 1청년창업사관학교, 2센터

(2013년 3월 현재)



운영위원 및 임원

운영위원

(2012년 12월말 현재)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위
위원장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연직	송언석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문승욱	지식경제부	중견기업정책관
	김정환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위촉직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병선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옥평권	(주)하도	대표이사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정숙	(사)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손원익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
	권의중	신용보증기금	전문이사
	박창교	(사)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중운	한남대학교	교수

임원

(2012년 12월말 현재)

직위	직무	성명
이사장	중진공을 대표하고, 중진공의 업무 총괄	박철규
감사	중진공의 업무 및 회계 감사	손광희
부이사장 겸 기획관리본부장	이사장 보좌, 중진공 업무 총괄 경영지원, 기획조정, 정책조사, 고객만족 등과 관련된 업무	전병천
기업금융본부장	진단사업, 융자사업, 리스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 담당	송성호
기업성장본부장	마케팅, 글로벌, 녹색, 정보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 담당	김석기
중앙연수원장 겸 수도권본부장	수도권 지역본·지부 및 중앙연수원 업무 담당	이상철
중부권본부장	중부권 지역본·지부 및 대구경북연수원 업무 담당	유종진
남부권본부장	남부권 지역본·지부 및 호남·부산경남연수원 업무 담당	장덕복
비상임이사	중진공 경영 의사결정 참여, 경영활동 감시 및 경영자문 등의 업무	오석송
비상임이사	"	서영욱
비상임이사	"	이희만
비상임이사	"	강병희
비상임이사	"	정병인
비상임이사	"	방은희
비상임이사	"	정광호
비상임이사	"	김중운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



발행일 2013년 4월
기획 및 편집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전략실
발행인 박철규
발행처 중소기업진흥공단